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김대관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I):

잠재력과 장애요인 ▶▶▶

본 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4년도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문 사회연구회 소관 9개 국책연구기관과 5개 외부단체가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1999년을 기준으로 세계 총생산의 20%,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 물동량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중국의 WTO 가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반사이익 등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Booz·Allen & Hamilton 보고서(1997)나 국제경제전문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을 가지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세계적 경제·기술대국인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부존자원, 기술수준뿐만 아니라 자칫 토지, 노동, 자본 등 요소가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Nut Cracker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성패는 향후 한국경제의 생존과 미래 번영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국가 간 경쟁은 물적 자본 중심의 한계 효용적 투자에 기초하는 물류, 금융, R&D의 중심기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 내 교류협력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비용적 사회자본 투자에 기초하는 평화와 번영의 문화적 공감대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류체험을 통한 상호이해증진과 미래에 대한 가치공유 등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다. 즉 관광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확보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으로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문화개방과 교류가 확대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교류협력은 이러한 문화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정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하며 동북아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부문간 관광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그것이 지니는 문화적 의미와 한계를 조망하면서 관광교류협력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장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국정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 관광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를 각각의 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기대효과와 한계를 기술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국가범위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제외하였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캄차카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이 포함되나 전체 국가 차원에서는 실질적 협력대상 국가로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협력대상 국가로서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성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제관광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국제관광협력의 제효과 그리고 국제관광의 장애요인과 협력의 한계를 기존 연구와 관련이론 및 개념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국제관광협력의 의미와 제효과를 정리하였다.

먼저 국제관광협력의 개념과 필요성에서는 국제협력의 '상호성' 개념

분석을 통해 국제관광협력의 개념을 “국제관광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간의 공동 노력”으로 정의하고, 前田 勇 등 기존 연구결과와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제관광협력 현상 분석을 통해 그 필요성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제효과에서는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유발되는 다양한 효과를 경제적 효과와 사회문화적 효과 그리고 물리환경적 효과로 구분하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관광의 장애요인과 협력의 한계에서는 David Edgell 등의 연구와 EIU, APEC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을 여행자 측면과 관광사업자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세계 관광시장 동향과 전망,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그리고 외국의 국제관광 교류협력 사례분석을 통해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세계 관광시장 동향과 전망에서는 세계 관광시장 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고 향후 성장 추세를 전망하였다. 향후 10년간 세계 관광시장은 연 평균 4.1% 이상의 빠른 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에는 15억 6,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6.5%이상의 고속 성장을 지속하여 2020년에는 전세계 관광시장의 25.4%를 차지하여 유럽에 이어 제2의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동북아 관광교류 현황과 전망에서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동향과 정치·경제적 역학관계를 살펴보고, 동북아 지역 관광시장 현황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 변화를 전망하였다.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지정학적 동맹관계가 지정학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면서 3국 간의 교역규모가 급속히 증가하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가간 관광교류에 있어서는 3국 간의 불균형적인 관광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한국은 송출객의 21.3% 및 20.3%가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관광을 가는 반면에 중국은 송출객의 3.2%만이 한국을 방문하며 일본은 송출객의 9.2%만이 한국을 방문하여 전체 송출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기준으로 인접국가간의 관광교류에 있어 불균형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장기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인바운드 및 아웃바운드 관광시장 규모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간 관광교류협력은 수화여행을 비롯한 관광객 교류와 한류 등을 통한 문화 교류협력 등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노비자(no-visa) 확대, 공동방문의 해 개최, NTO 공동마케팅 실시, 공동관광포럼 개최, 공동연계상품 개발, 국가간 관광관홍협의회 정례 개최 등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국제관광교류협력 사례분석에서는 국가간 관광분야의 다자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아세안 국가연합(ASEAN)의 관광교류협력 사례와 아세안+3국(한국, 중국, 일본)의 교류협력 사례 그리고 중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해외사례분석 결과에서는 공공부분의 협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창구로 관광장관회의 등의 상설 운영이 필요하고, 관광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간 투자활성화와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출입국 관광객 등 국제관광동향과 관광관련 법·제도와 주요 관광계획 등 관광진흥정책을 중심으로 각국의 관광환경과 협력여건을 분석하여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체계를 구상하였다.

먼저 한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에서는 외래객 입국동향과 내국인 출국동향 그리고 관광수지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한국관광의 잠재

력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정부의 관광정책 변화추와 앞으로 예상되는 관광환경 변화를 전망했다.

출입국 동향에서는 IMF이후 외래관광객 증가가 정체상태에 있는 반면 내국인의 해외 관광은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더욱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어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광수지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관광잠재력으로는 동북아의 중심이라는 지정학적 입지와 역사·문화 및 자연자원 그리고 관광인력과 세계 속의 국가이미지가 상대적인 잠재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고 부각하는 전략과 실천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광인프라와 서비스, 관광목적지로서의 유인요인,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그리고 관광에 대한 인식이 장애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관광정책은 기존의 외래관광객 유치중심 정책에서 국민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전국적인 국민관광환경 개선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외래관광객 편의와 유인매력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에서는 외래객 입국동향과 중국인 출국동향 그리고 국제관광수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중국의 국제관광진흥 정책과 관련 계획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기회와 이에 따른 전망을 기술하였다.

방중 외래객은 2002년 기준 세계 5위이나 2020년에는 세계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을 기준으로 일본에 이어 한국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해외 관광은 1983년 광둥성 거주민의 친지방문 허용을 시작으로 중국 내 허용지역과 해외 여행자유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공무보다 개인출국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중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는 향후 여행자유지역 확대와 소득수

준 향상에 따라 구미주지역 등 장거리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중국의 관광외화수입은 2002년을 기준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하였으며, 2001년을 기준으로 관광외화수입이 국내 총생산의 5.2%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관광진흥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국민의 국내관광 그리고 자국민의 해외관광 순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은 2015년과 2020년을 목표로 한 발전구상을 담은 『십오(十五)계획』을 통해 2020년 아시아 관광대국에서 세계 관광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의 관광정책 비중 확대, 관광자원 보호정책 추진, 중국 이미지 선전 강화, 관광정보 네트워크 구축, 중국관광의 세계 표준화 추진, 관광안전관리의 강화, 중국관광의 개방확대, 우수관광도시 조성, 관광법제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십오(十五)계획』의 실현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개최를 통해 중국관광발전을 가속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에서는 외래객 입국동향과 일본인 출국동향 그리고 국제관광수입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의 국제관광진흥계획과 관련 주요정책을 살펴보았다.

방일 외래객은 최근 4년간 연평균 약 6.3%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2년에는 5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일본인의 해외관광은 지난 10년간 버블경제, 엔저현상 등 경기침체로 인해 연간 1,600만 명 수준에서 증감을 반복해 왔으나, 최근 버블경제가 사라지면서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있어 앞으로는 출국자 수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일본인 출국자 수가 외래입국자 수의 3배를 넘고 있어 연평균 20~30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해 왔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1970~80년대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 급증에 따른 국제적 통상마찰 해소 대책으로서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적극적으

로 장려해온 정책적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 말부터 일본의 관광정책은 과거 자국민의 국내관광정책 및 해외여행촉진 정책과 더불어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정책변화는 “글로벌 관광전략”과 “Welcome Plan 21” 계획에 이은 “New Welcome Plan 21” 계획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글로벌 관광전략은 일본의 불균형한 방일 외래객과 일본인 해외여행자와의 격차가 지속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2010년 방일 외래객 1,000만 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파급효과와 신규고용을 창출하고자 계획되었다. 또한 “New Welcome Plan 21” 계획은 외국인 방일 촉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가와 지방 그리고 민간 관광업계의 외국인 방일 촉진시책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민관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고자 수립되었다. 이 밖에도 일본은 국제관광교류협력 진흥을 위하여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외래관광객 유치 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체계 구상에서는 제3장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분석 결과와 해외사례 분석 결과 그리고 앞서 살펴본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 모형을 적용하여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체계를 설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 그리고 제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의미를 살펴보고 한국, 중국, 일본간의 관광교류협력에 있어서 나타나거나 예상되는 잠재력과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의미로는 첫째, 3국간 관광교류협력이 상호호혜적인 관계에 입각한 무한한 교류협력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시험장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둘째, 세계화와 개방화 차원에서 동북아 지역의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동북아 지역을 세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셋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과거

의 역사적 공유성과 갈등 그리고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비롯하여 현대 사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교류협력이 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동북아 지역의 관광교류협력 잠재력에서는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본적 잠재력으로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유교문화와 한자문자를 기초로 한 역사적 공통성과, 한반도의 남북문제, 3국간의 역사문제 등을 통한 정치·사회·이데올로기적 경험과 대처능력, 그리고 급격한 서구화 과정에서의 동서양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등을 통한 교량 또는 매개자 역량 보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의 잠재력으로는 동북아 3국 모두 관광에 대한 국가적 정책관심이 높으며, 역내 국가간 상호교류가 활발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인접국가로서 세계시장에 대한 아시아 대표지역의 이미지 확보 및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관광교류협력 장애요인에서는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본적 장애요인으로 3국의 정치체제의 차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차이, 한·일간 독도문제와 중·일간 조어도 문제 등 영토분쟁, 한·중·일간의 역사논쟁 문제, 3국의 폐쇄적인 근대민족주의 문제 그리고 일·중간 지역패권 경쟁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의 장애요인으로는 3국의 경제적 수준 차이와 언어소통 문제 그리고 한반도의 북핵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제6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 그리고 제5장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단계를 설정하고, 잠재력 있는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분야와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따른 파급효과를 기술하였다.

먼저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4단계의 일정한 발전과정을 보인다고 전제하고 이를 국가간 교류협력의 창구를 만드는 교류협력 채널구축 단계, 기존 교류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단계, 국가간 협력에 의한 시범사업 추진단계 그리고 관광관련 법·제도 기준을

통일하는 단계로 설정하였다.

또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잠재 분야는 제3장과 제4장의 분석결과와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보기술 공유 및 공동연구, 관광객 및 인적자원 교류,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홍보·판매,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투자 촉진 등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사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관광교류협력 사업으로는 동북아 역내 무사증 (North East Asia Intra-Visa)제도 도입, 동북아 관광패스(North East Asia Travel Pass) 개발, 동북아 관광협력공사 설립, 한·중·일 문화관광교류전 순환 개최, 동북아 관광기업인 총회 개최, 한·중·일 공동 방문의 해 개최, 아시아 관광연구센터 설치, 녹색관광 모델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관광상품 기획위원회 설치, 동북아 연계 체험관광상품 개발, 동북아 관광안내 홍보물 발간 및 배포, 동북아 관광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실현과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를 언급하고, 향후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5
3. 연구방법	6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6
II. 국제관광협력의 의의와 제효과	9
1. 국제관광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11
2. 국제관광협력의 제효과	15
3.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한계	18
III.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	23
1. 세계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25
2. 동북아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28
3.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현황 및 전망	34
4. 외국의 국제관광교류협력 사례분석	47
5. 시사점 종합	54
IV. 한중일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	57
1. 한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59
2. 중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71
3. 일본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83
4. 시사점	91

V.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력과 장애요인	93
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의미와 기대효과	95
2.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잠재력	97
3.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	100
4. 시사점과 대응전략	104
VI.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 분야 및 사업	105
1. 교류협력 단계 설정	107
2.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 분야 검토	108
3.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사업 검토	109
4.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기대효과	119
VII. 정책제언 및 결론	123
1. 정책제언	125
2. 결 론	126
참고문헌	129
부 록	133

표 · 그림 목차

<표 II-1> 지방정부의 국제관광교류협력 장애요인	18
<표 II-2> APEC회원국의 관광장애요인 사례	20
<표 III-1> 세계 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및 점유율 현황	25
<표 III-2> 세계 지역별 관광 수입 및 점유율 현황	26
<표 III-3> 송출지역별 국제관광객 수 및 점유율 현황	27
<표 III-4> 세계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전망	28
<표 III-5> 한·중·일 목적지별 관광객 송출 현황(1999년)	31
<표 III-6> 한·중·일 국적별 관광객 입국 현황(1999년)	32
<표 III-7> 한·중·일 관광시장 전망	33
<표 III-8> 연도별 중국인 입국자 현황	34
<표 III-9> 방한 중국인의 연도별/항목별 지출경비 현황	35
<표 III-10>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현황	37
<표 III-11> 방한 일본인의 연도별/항목별 지출경비 현황	38
<표 IV-1> 방한 외래객 입국 동향	60
<표 IV-2> 한국인 출국 동향	60
<표 IV-3> 한국의 국제관광수지 동향	61
<표 IV-4> 수출산업과 비교한 관광관련 규제 현황	65
<표 IV-5>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69
<표 IV-6> 방중 외래객 입국 동향	72
<표 IV-7> 방중 외래객 출발국의 순위 변화	73
<표 IV-8> 중국인 출국 동향	74
<표 IV-9> 중국인 방문목적지 분포 상황	75
<표 IV-10> 중국의 국제여행 수입 동향	76
<표 IV-11> 방일 외래객 입국 동향	84
<표 IV-12> 일본인 출국 동향	85
<표 IV-13> 일본의 국제관광수지 동향	85
<표 IV-14> 글로벌 관광전략의 주요내용	87
<표 V-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기대 효과	120

그림 목차

<그림 III-1> 2002년 세계 지역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	26
<그림 III-2> 아시아지역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현황(2002년)	30
<그림 IV-1> 방한 외래객 입국자 수 및 내국인 출국자 수	68
<그림 V-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형태와 단계별 발전과정	107
<그림 V-2> 국제관광 협력분야별 협력방안	108
<그림 V-3> 국제관광협력의 일반적 편익	119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가. 연구의 배경

세계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이 환태평양에서 미국을 지나 아시아지역으로 이동하여 21세기에는 환태평양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이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정치·경제의 중심지일 것이라는 전망이 미래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적 관계의 개선, 시장경제화의 진전, 세계경제의 블럭화 등의 추세에 따라 상당한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상호간에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면에서 경쟁과 협력, 그리고 보완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세계는 사람, 물자, 자본의 이동 및 교류가 자유로운 개방화·지구촌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제화·개방화 시대에는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와 세계를 함께 생각하는 제정책의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한국의 제정책, 특히 관광정책은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제외하면 대부분 국내적 안목과 사안에 치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이념중심의 세계체제 붕괴 속에서 금강산 관광 등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기를 띠고 있는 이때에 한국은 통일한반도와 나아가 동북아시아 및 세계를 향한 제반 국가 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고 준비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관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지경학적 입지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관광정책은 세계질서 속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할 및 위상변화에 대한 우리의 positioning 설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고, 그 결과 동북아 지역 차원의 국제관광 전략이 부재한 실정이다.

동북아시아의 한국·중국·일본 3국은 향후 환태평양 시대의 중요한 정

치·경제·사회의 거점지역이며 동시에 아시아적 문화를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문화거점으로서의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지경학적인 입지 우위와 도래하는 환태평양시대, 특히 동북아시아가 그 중심에 있을 21세기를 준비하고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산업이자 국제교류협력의 주요 분야인 관광교류협력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발전전략 수립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상호교류협력을 통한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공동체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최근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적 관광경쟁 관계를 상호 보완·연계·협력의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연구의 목적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국가 간 경쟁은 물질 자본 중심의 한계 효용적 투자에 기초하는 물류, 금융, R&D의 중심기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이를 위하여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 내 교류협력을 통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비용적 사회 자본투자에 기초하는 평화와 번영의 문화적 공감대 확보 내지는 공동체 형성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어 왔으며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류체험을 통한 상호 이해증진과 미래에 대한 가치공유 등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관광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은 동북아 경제 중심지 확보 뿐 아니라 동북아 지역 내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Win-Win) 전략으로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의 관광산업은 단순히 수요측

면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계관광기구는 2001년 전 세계 6억 8,900만 명의 국제관광객 중에서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이 약 17%인 1억 1,500만 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2억 명, 2020년에는 약 4억 명 수준으로 증가하여 전 세계 국제관광객의 약 25%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 3국에서 창출하는 국제관광객 수도 국가별로 연평균 약 6~12% 성장하여 2020년경에는 약 2억 5,000만 명에 달하고, 한·중·일이 유치하게 될 국제관광객 수도 2010년을 기준으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방문하는 국제관광객의 약 60%인 1억 2,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북아 지역이 국제관광의 중심지역 중 하나로 부상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문화개방과 교류가 확대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 교류협력은 이러한 문화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북아 지역 내 공공 및 민간부문간 관광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교류협력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미치는 제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면서 관광교류협력이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평가하고 그 장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국정목표인 동북아 경제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동북아 관광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으로 한정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제외하였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에 캅차카반도를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이 포함되나 전체 국가 차원에

서는 실질적 협력대상 국가로서 한계가 있으며, 북한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협력대상 국가로서의 여건과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류협력 성과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4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 및 관련통계 조사
- 해외사례 벤치마킹
- 전문가 설문 또는 면접조사
- 관계전문가 자문 및 협의

4. 연구의 기대효과 및 한계

가.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의 기대효과로는 첫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상호 교류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을 촉진 및 확대하고 셋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방향성 및 정책적 접근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의 실현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다양한 연구의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이 지니는 고유의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과거사 등의 영향으로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확보와 정책적 대안제시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 있으며, 다양한 환경변화에 따라 수시로 민감하게 대응하는 각 국가별 국제관광정책의 세부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연구결과로 제시되는 정책제안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II

국제관광협력의 의의와 제효과

1. 국제관광협력의 개념과 필요성

가. 국제관광협력의 개념

(1) 국제협력의 정의

OECD 개발원조위원회는 국제협력을 지원의 개념에서 접근하여 경제협력 중심의 원조와 차관 등의 지원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 OOF), 비정부기구(Non Governmental Organization: NGO)를 포함하는 민간자금의 흐름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이 정의한 국제협력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정의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비해 Snidal은 국제협력을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간, 국가와 국제기관간의 모든 유무상의 자본협력, 교역협력, 기술·인적협력, 사회문화협력 등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류를 총체적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은 보다 상호주의적이며 평등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협력분야에 있어서도 경제영역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분야까지 포함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관한 개념은 두 가지의 중요한 요인으로 구성됨. 첫째는 각각의 행위자들의 행위는 특정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달성을 위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행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협력이 행위자들에게 반드시 동일할 수는 없으나 상호적인(mutual) 이득과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다. Keohane은 각 국가는 자신의 보상을 기대하면서 자국의 정책을 타국의 목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데, 이때 얻게 되는 상호이익을 상호성(reciprocity)이라는 말로 개념화하였다.

상호성은 개념적으로 조건부성(contingency)과 등가성(equivalence)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지니고 있다. 조건부성이란 행위자의 행동은 상대의 반응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 의미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상대

의 행동 여하에 따라 나 자신의 행동도 결정되며, 따라서 상대방부터 보상적인 반응이 예상되지 않으면 내 행동도 중지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등가성이란 사회적 교환에서 교환의 이익을 엄격한 등가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환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나 이익이 일방적이지 않으면서 대략적인 가치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상호성은 “한 행위자의 행동이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대하는 것처럼 상대의 이전의 행동을 조건으로 발생하는 곳에서 대략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교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국제협력의 목적

국제협력의 일반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상호이해의 촉진, 상호이익의 추구, 세계평화에의 공헌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견해는 정치,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국제교류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자국과 외국간의 상호친선과 이해를 도모하고(상호이해), 자국과 외국사이의 쌍방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상호이익), 자국을 포함한 세계평화의 공헌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제협력의 주체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기대되는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협력의 목적을 정치, 경제, 문화적 부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첫째, 정치적 목적은 외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자국의 안전보장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본다. 둘째, 경제적 목적은 경제활동의 국제적 협력 및 보완을 통해 물질적인 면에서 보다 고도의 생활수준을 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셋째, 문화적 목적은 정신문화면을 비롯하여 물질적 측면을 보완하는 비물질적 분야에서 정신적으로 보다 풍요한 삶을 실현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국제관광협력의 개념

관광은 사람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국제교류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구촌시대 국제협력의 중심개념으로 대두되며, 세계화시대의 가장 특

정 있는 현상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특히 국제관광협력은 인적·경제적·문화적 교류를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떠한 형태의 협력보다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관광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기존의 국가간 관광협정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체결을 통한 관광교류협력은 대부분 실질적이고 유기적이며 장기적이지 못하고, 상징적이고 단편적인 교류협력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은 지원의 개념보다는 상호 주의적이며 상호의존적인 동등한 관계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국제관광협력은 협력의 동기가 제약된 자원을 상호 보완하여 활용하려는 상호 주의적 입장이나 협력을 통하여 서로가 실질적 이익을 확보하거나 그 효용성을 높이려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국제관광협력은 국제관광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국제관광의 발전을 통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간의 실질적이고 유기적이고 공동노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나. 국제관광협력의 필요성

오늘날 '사람' '상품' '자본' '문화'가 상호 교환되고 상호의존을 더해가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제교류협력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복잡한 국제환경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 외국과의 협력관계,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제적 상호이익의 촉진과 국제적 상호이익의 실현을 의미하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세계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밑받침이 된다.

지금까지 국제교류협력은 정치·경제적 수단을 중심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류가 중심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현재 세계 국제교류협력의 흐름은 종래의 정치·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수준의 교류협력으로부터 '인간, 지역정보, 지역문화'의 측면이 크게 다루어지는 다각적·다원적 교류협력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前田 勇은 일본과 한국의 국제관광교류에 대한 연구에서 양국의 관광교류 활성화가 갖는 의의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관광객 수 증가와 관련하여 세계 관광시장에 있어서 동북아 지역 전체의 지위를 높이는데 공헌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유럽시장 등의 유치를 위해 동아시아지역의 관광협력체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한·일간 관광교류의 발전과제로서 양국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광객교류의 증대를 들고 있으며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를 비롯하여 관계기관 및 기업이 노력해야 하고, 이러한 양국간의 관광교류는 양국 문화의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前田 勇의 국제관광교류를 국제관광협력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한·일간의 관광협력의 필요성을 양국간의 이해증진과 관광시장의 확대에 두고, 국제관광협력의 인적교류차원에서 관광객교류의 확대를 주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관광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점에서는 그 의의가 있으나 관광객 중심의 국제교류는 국제관광협력의 다양한 내용과 효과는 포괄하지 못한 부분적인 협력이라는데 한계가 있다.

국제관광협력의 필요성은 관광교류방식의 변화요구에서도 나타난다. 즉 '60~'70년대의 한국의 상품무역방식은 수출일변도였으나 현재는 수출입이 연계된 "Two-Way Trade"방식을 지향하고 있음을 볼 때, 동일한 대외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관광무역도 국제화, 세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Two-Way Tourism"을 지향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오늘날의 지구촌사회에서는 일방적인 교류보다는 쌍방적인 교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더욱 크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제관광교류에 대한 관점을 다양화하고 관광분야의 국제협력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제관광협력의 필요성으로는 국가간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관광현안들의 증가,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의 발전전략으로서 관광에 대한 지방정부의 관심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2. 국제관광협력의 제효과

김철용과 이연택은 국제관광의 영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의 인식이 매우 단편적이었음을 지적하고 국제관광이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광범위함을 지적하고 있다. 즉 국제관광이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인식되어온 국제관광수용사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관광객을 송출하는 국제관광자사회에 모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의 범위 또한 경제적 수준 뿐 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물리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효과 또한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가. 경제적 효과

국제관광은 단순히 국가간의 여행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제관광자 자신의 여행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되는 여행 지출을 포함한다. 이는 관광목적지 국가 즉, 국제관광수용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여행수입을 의미한다. 세계관광기구(WTO)의 조사에 의하면 2001년을 기준으로 국제관광 총수입은 4,622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세계 총수출액의 약 10%에 이르는 금액이다. 관광의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의 중요성으로 인해 최근에는 개도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조차 외화획득과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제관광을 육성·진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관광에서 발생하는 교류와 협력을 통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해당 국가가 지니는 관광시설 및 서비스 수준, 지리적 조건, 관광조직체의 활동, 투자재원 등 제반관광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조건이 충분하게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국제관광은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제관광의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로 대표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수출산업으로서 87.2%에 달하는 외화가득률을 통한 수출증대 효과와 일본이 1980년대 자국민의 해외여행 촉진 정책(Ten Million Program)을 통해 과

도한 국제수지 흑자문제를 해결한 경우에서와 같은 국제수지 균형효과 그리고 국제관광자가 여행목적지에서 지출한 소비를 통해 발생하는 생산, 소득, 고용증대 효과, 국제관광객이 지출한 비용을 통해 발생한 수입에 따른 정부의 세수증대 효과, 관광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신규산업 출현에 따른 지역산업구조 개선 효과 등이다.

반면에 국제관광에 의한 부정적 경제효과로는 거품경제를 가져와 고물가와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쉬우며, 수요의 계절성으로 인해 자칫 시설의 유휴화 등을 초래하여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나. 사회문화적 효과

문화가 국제관광의 대상이 되면서 문화는 그 고유의 양식으로부터 변화하거나 변질되기 쉬워진다. 국제관광은 인간의 이동이며 이것은 자연스럽게 국제관광객의 문화와 관광목적지의 문화와의 접촉을 유발한다. 문화의 흐름은 대개 중심문화가 주변문화로 파급되는 경향을 보이거나 문화의 고유성이나 내재된 힘에 따라 주변문화에 의해 중심문화가 변화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관광 교류협력을 통한 사회문화적 파급효과는 국제관광객의 유형에 따라서도 차이나 난다. 소수의 탐험적 관광객은 관광목적지의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수준이 높고 지역문화에 주는 영향도 적은 반면 대중관광객들은 관광목적지의 문화가 자신의 문화에 익숙하게 변형되기를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국제관광의 사회문화적 영향에 대한 이해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공유되어 왔으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즉, 국제관광에 의한 문화교류는 문화제국주의 혹은 문화식민지화의 부정적 개념으로 해석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문화의 고유성이 보편성으로 대체되는 문화보편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관광에 의한 문화교류의 부정적 측면으로는 범죄, 매춘, 도박 등 각

중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문화의 고유성을 상실한 상품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최근에 들어 긍정적 영향에 대한 발전가능성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전통문화가 복원되고 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는 문화의 재창조, 상호교환적 문화이해를 통한 타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관광 대상으로서 전통문화에 대한 새로운 가치부여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도 여성의 사회참여기회 확대, 가족구조 변형, 전통가치관의 변화 등이 국제관광의 사회문화적 효과내지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다. 물리환경적 효과

환경이라는 말은 대개 인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외부여건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최근의 인식 속에는 자연환경과 연계된 개념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국제관광교류의 물리환경적 효과에서 물리적 환경에 대한 개념은 이러한 협의의 환경개념과 각종 인공구조물과 시설물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이해되며, 그 영향은 보전과 개발, 훼손과 오염 등이 주요영향 효과로 논의되고 있다. 부정적 효과로는 관광시설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생태계 파괴, 쓰레기·폐수 등의 생활환경 오염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국제관광에 의해 자연조건과 물리조건이 새로운 가치를 부여받고 더욱 그 매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개발을 통한 새로운 관리 및 운영기법의 발굴과 활용은 한정된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각종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의 대표적 예라 할 수 있다.

3.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과 한계

가. 국제관광의 장애요인

David Edgell은 “국제관광은 관광객과 관광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장애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이 제거되거나 훨씬 줄어들었다면 관광교역이 보다 더 자유로워지고 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으며, 소비자 편리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또한 정치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국가목표에 보다 평화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주장에서 볼 때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은 관광전반에 대한 발전과 성장에 제약이 되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박기홍은 지방정부들의 국제관광협력의 장애요인을 조직장애, 제도장애, 환경장애, 인식장애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장애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표 II-1> 지방정부의 국제관광교류협력 장애요인

분 야	세 부 내 용
조직장애	협력재원부족, 추진부서이원화 및 규모미약, 담당인력 전문성 미흡, 협력경험부족, 협력관련 정보부족
제도장애	중앙정부 통제 및 간섭, 중앙정부 인식부족
환경장애	각국 보호무역주의, 문화마찰(관습, 가치관, 제도), 국내정치불안정
인식장애	지역주민과 기업의 무관심, 지방정부 인식부족(단체장, 관광공무원)

자료: 박기홍,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1997).

EIU가 발간한 국제관광장애요인에 관한 분석보고서에서는 “만일 여행과 관광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비관세 제약이 없다면 국제관광시장의 가치는 훨씬 배가될 것이며, 관광관련 기업의 여행과 경영에 적용되는 정부의 규제들은 국제관광의 성장을 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동 보고서에서는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관세규제, 출입국 절차, 교통·숙박·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같은 관광의 개인적 측면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시장 진입과 기업경영 보조금과 같은 관광의 여러 측면들에서 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이다.

또한 OECD는 국제관광의 장애를 개인의 여행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출국과 수용국의 장애, 여행편의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대리점, 여행사 등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 항공, 철도, 크루즈 등 교통을 제공하는 기업에 미치는 장애, 호텔, 리조트, 렌트카업체 등 수용시설을 제공하는 업체에 미치는 장애, 보건검역에 대한 규제 등의 기타 장애 등으로 국제관광의 장애를 크게 5가지의 주요영역 41개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OECD관광위원회(OECD's Committee on Tourism)에서는 이 같은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은 관광수용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전 분석을 기초로 APEC관광실무그룹(TWG)에서는 1996년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APEC지역의 관광성장에 대한 장애요인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역내 국제관광의 장애요인을 크게 개인적 장애요인과 관광사업관련 장애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II-2> APEC회원국의 관광장애요인 사례

장애의 형태		설 명	예
개인 여행자 들에게 영향을 주는 장애	비자요구	일반적, 특별한 국가들 또는 특별한 면제	- US비자포기 프로그램 - 단수통과비자
	해외여행 제한	해외로 여행하는 개인 자격제한	- 일반적 제한 또는 특정국가 제한
	외국환 (inbound)	방문객의 외환환전 제한	- 환전은행 제한 - 신용카드 사용제한
	외국환 (outbound)	거주자들이 소지하고 나갈 수 있는 통화량 제한	-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제한
	세관이나 관문 통제	알콜 이외에 방문자들에 의한 수입항목 통제	- No green lane 설치 - 검역검사
	출국세	탑승객의 범주나 공항간의 차이	- 지역공항세(예: 시드니 소음세)
관광 관련 사업에 영향을 주는 장애	사업면허와 승인	외국인 소유 관광사업 운영에 대한 제한	- 지역적 권리에 대한 요구 또는 운영유형에 대한 선별적 제한
	수입정책	자본상품 수입제한 소비재 수입제한	- 배, 코치의 수입 - 호텔 고객용 주류
	외국인 투자(사업)	사업상 구매 제한	- 민영화된 공공분야운영에서의 외국인 권리 제한
	외국인 투자(재산)	관광객 관련 재산의 구매 제한	- 외국인 소유 호텔에 대한 승인 요구
	세금과 요금	관광관련 사업에 대한 차별적 요금부과	- 호텔세와 식당세
	외국인 환전 통제	여행통상범위 내에서 지불 통제	- 외국인 운송업자나 도매업자에 대한 대금결제
	이익이나 자본의 송금	배당금이나 자본수익에 대한 통제나 세금부과	- 배당금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 자본 재지불의 제한
	고용	전문직에 해외 동포들의 고용 통제	-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비자기간 제한
	진흥도구의 수입	광고와 진흥도구의 수입제한 또는 관세	- 외국에서 인쇄된 광고물의 사용

자료: APEC TWG, *Impediments To Tourism Growth In The APEC Region* (1996).

나. 국제관광협력의 한계

국가간 관광협력은 주요 관광협력분야별 협력내용에서 보듯이 국제협력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관광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천적이고 구체적이며 상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실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 면에서 제약과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기본적으로 국가간 관광협력은 회원국간의 다양한 국가수준과 문화차이로 인해 공동의 협력주제를 발굴하는데 한계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협력의 내용이 단순하고 비경제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실효성이 부족하고 협력에 대한 회원국의 적극적 참여도도 미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이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성과가 지역에 파급되기 힘들며, 파급효과를 지역에서 직접 체감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적 호응을 얻는데도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국가간 협력, 특히 다자간 협력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의를 통해서만 협의가 이루어지므로 협력에 대한 합의과정이 장시간 소요되는 생산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관광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기타의 측면에 대한 협력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방자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측면을 중앙정부차원의 협력으로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III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

1. 세계 관광시장 동향 및 전망

가. 세계 관광시장 동향

2002년 말을 기준으로 국제관광객 수는 전 세계적으로 총 7억2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7% 증가하여 2001년 SARS, 이라크전쟁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관광교류가 다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하였다.

지역별 성장률을 보면 중동지역이 2001년 대비 16.7%의 성장을 보였으나 전체 관광객 규모가 크지 않아 성장률 변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인 지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2001년 대비 8.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대륙별 시장점유(market share)에 있어서도 2001년부터 미주지역을 제치고 유럽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표 III-1> 세계 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명, %)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성장률(%) (2002/2001)	점유율(%) (2002)
세 계	455.9	550.4	687.3	684.1	702.6	2.7	100
아프리카	15.0	20.0	27.4	28.3	29.1	2.8	4.1
미 주	93.0	108.8	128.0	120.2	114.9	-4.4	16.3
아시아·태평양	53.7	85.6	115.3	121.1	131.3	8.4	18.7
유 럽	280.6	322.3	392.7	390.8	399.8	2.3	56.9
중 동	9.7	13.6	24.0	23.6	27.6	16.7	3.9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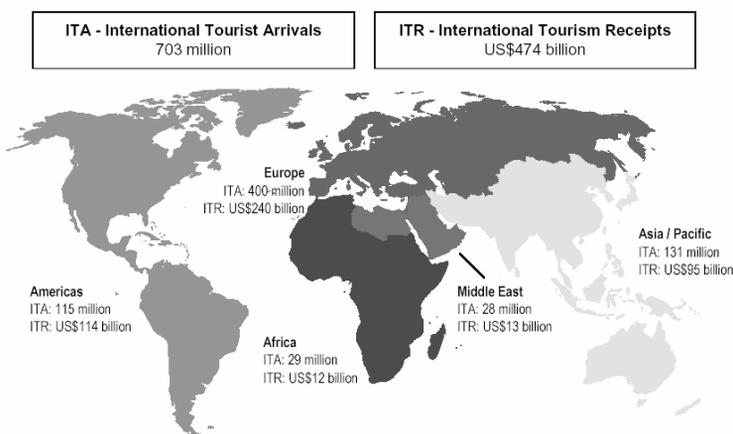
2002년 전 세계적으로 총 4,740억 달러의 국제관광수입이 발생하여 전년 대비 0.3%의 성장을 보였으며, 관광객 수와 마찬가지로 중동지역이 관광수입에서도 2001년 대비 가장 높은 13.3%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실질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5.1%의 성장률을 기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표 III-2> 세계 지역별 관광 수입 및 점유율 현황

구 분	2002 (10억US\$)	성장률(%) (2002/2001)	점유율(%) (2002)	관광객 1인당 수입 (US\$)
세 계	474	0.3	100	675
아프리카	11.8	2.0	2.5	405
미 주	114.3	-4.8	24.1	995
아시아·태평양	94.7	5.1	20.0	720
유 럽	240.5	-1.8	50.7	600
중 동	13.0	13.3	2.7	470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3).

<그림 III-1> 2002년 세계 지역별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2002년 현재, 총 4억49만 명의 유럽인이 해외여행을 하여 전체 국제 관광시장 송출의 57.6%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총 1억3120만 명(18.7%)을 송출하여 미주 지역(17.1%)을 제치고 국제 관광 주요 송출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표 III-3> 송출지역별 국제관광객 수 및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명,%)

구 분	1990	1995	2000	2001	2002	성장률(%) (2002/2001)	점유율(%) (2002)
세 계	455.9	550.4	687.3	684.1	702.6	2.7	100
아프리카	9.9	12.8	16.1	16.3	16.8	3.3	2.4
미 주	99.2	107.9	130.5	123.7	120.2	-2.8	17.1
아시아·태평양	60.2	89.8	118.9	121.6	131.2	7.9	18.7
유 럽	263.9	317.6	394.8	394.3	404.9	2.7	57.6
중 동	8.0	9.5	14.2	15.6	16.0	9.5	2.3
송출 지역 불분명	14.7	12.9	12.9	13.7	13.5		1.9
같은 지역으로 송출	361.4	437.9	538.8	543.2	561.9	3.4	80.0
다른 지역으로 송출	79.8	99.6	135.6	127.2	127.2	0.0	18.1

자료: WTO, Tourism Highlights (2003).

나. 세계 관광시장 전망

세계 관광시장의 성장 규모는 2000년대 초까지는 4.0% 미만의 성장률을, 그 이후에는 4.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결과 2010년에 10억 6백만 명, 그리고 2020년에 15억 6천 1백만 명의 세계 관광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995년~2020년 동안 세계 관광시장 성장률인 4.1%를 능가하는 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며, 시장점유율 또한 2010년 19.40%, 2020년 25.44%로 전망되어 향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요 국제관광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II-4> 세계지역별 국제 관광객 수 전망
(단위: 백만 명, %)

구 분	1995	2010	2020	평균성장률(% (1995-2020))	점유율(% (1995))	점유율(% (2020))
세 계	565.4	1,006.4	1,561.1	4.1	100	100
아프리카	20.2	47.0	77.3	5.5	3.6	5.0
미 주	108.9	190.4	282.3	3.9	19.3	18.1
동아시아·태평양	81.4	195.2	397.2	6.5	14.4	25.4
유 럽	338.4	527.3	717.0	3.0	59.8	45.9
중 동	12.4	35.9	68.5	7.1	2.2	4.4
남아시아	4.2	10.6	18.8	6.2	0.7	1.2
역내관광	464.1	790.9	1,183.3	3.8	82.1	75.8
장거리 관광	101.3	215.5	377.9	5.4	17.9	24.2

자료: WTO(2003), Tourism Highlights.

2. 동북아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가. 동북아 지역 경제동향과 역학관계

(1) 동북아 지역 경제동향

세계적으로 지역적 경제블록을 구축해 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중국, 일본으로 구성된 동북아 지역이 향후 세계 3대 경제권의 핵으로 부각되고 있다.

동북아는 1990년 세계 총 GNP의 약 16%, 전 세계 교역비중의 19%를 차지하였으며, 연평균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세계 수출입 시장에 대한 비중은 1993년의 20.7%에서 2010년에는 30.1%로 확대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동아시아 지역이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세계 총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경제블록별로 살펴보면 EU는 1990년 30.1%에서 2010년 27.6%로 줄어들고, NAFTA 역시 30.1%에서 27.6%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¹되는 한편 인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비중은 1990년의 22.7%에서 2010년 27.4%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한국, 북한을 포함한 인구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15조 8,400만 명으로 전세계 인구의 27%에 달하고 있으며, GNP역시 약 5조 7천 5백억 달러 수준으로 전 세계의 약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등 경제적 중요성 및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1996년 한, 중, 일 3국의 대외교역 총량은 13,316억 달러로 세계 총 교역량의 12.5%를 차지하였으며, 이 중 동북아 역내 교역은 2,551억 달러로 3국 전체 교역량의 19.2%를 차지하였다. 중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한·중, 한·일, 중·일간의 교역 규모는 앞으로도 대폭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동북아 지역의 정치·경제적 역학구조

동북아시아의 구도는 과거 냉전시대의 이념 중심의 북방 3각(구 소련·중국·북한)과 남방 3각(미국·일본·한국)의 분리 대립구도에서 경제와 안보중심의 새로운 다층적 협력구도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신질서 형성은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중국·일본의 협력을 주축으로 전개되면서 북한, 러시아, 몽고는 부차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유럽과 달리 제도적 기구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동북아시아 경제 안보 협력체제의 형성이 쌍무적인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다소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후반의 아시아경제위기를 계기로 보다 제도화된 그리고 다자간의 협의에 근거한 동북아 경제협력체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 내 경제적 상호보완성, 경제협력이 미치는 지역안정 효과, 그리고 유럽연합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등 지역경제블록에 대한 공동 대응의 방안으로서 동북아 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동북아는 현재 지정학적 동맹관계에서 지정학적 제휴관계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놓여있으며,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한·중·일의 협력체제가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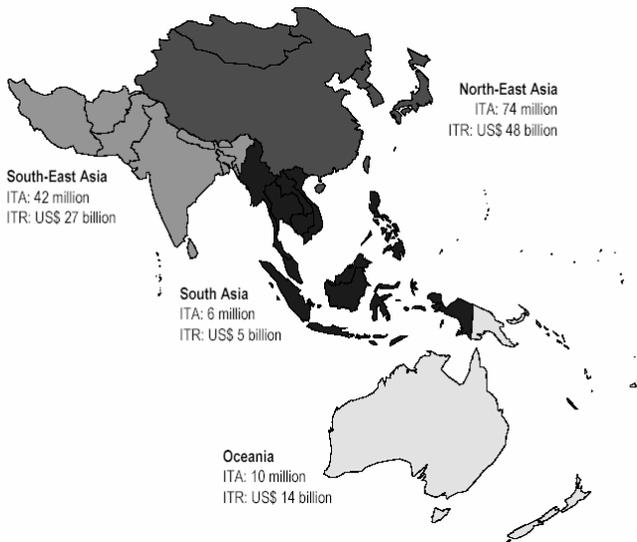
¹ 일본경제기획청, 글로벌리제이션 워킹그룹 보고서, 1998

전 중에 있으나, 장래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항하는 중-일-러의 협력체제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 동북아 지역 관광시장 현황

2002년 말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 국제관광객 수는 총 1억3,1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며, 이중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광객 수는 총 7,360만 명으로 전 세계 관광시장의 10.5%,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관광시장의 5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II-2> 아시아지역 국제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현황(2002년)



다. 한·중·일 관광시장 현황 및 전망

(1) 한·중·일 관광시장 현황

1999년 경우 한국의 outbound 관광객은 약 465만 명이었으며, 이중 21.3%가 중국으로, 그리고 20.3%가 일본으로 관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는 76.4%가 관광하여 인접국가 및 역내 관광에 대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우 outbound 관광객의 3.8% 및 3.6%만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인접국에 대한 관광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관광은 81.7%로 나타나 역내관광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민의 중화권에 대한 관광선호도라기 보다는 중국의 자국민 해외여행 목적지 제한 정책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의 경우 outbound 관광객 수가 약 2,379만 명으로 3국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나, 인접국에 대한 비율(한국, 중국에 대한 비율 각각 9.2% 및 7.8%)은 상대적으로 낮고 역내 관광에 대한 비율(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비율 49.5%)도 그다지 높지 않아 구미주 등 서구지역에 대한 관광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5> 한·중·일 목적지별 관광객 송출 현황(1999년)
(단위: 명, %)

목적지 송출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태평양	세계
한국	-	991,979	942,674	3,554,024	4,649,999
	-	21.3%	20.3%	76.4%	100%
중국	316,639	-	294,937	6,740,530	8,252,403
	3.8%	-	3.6%	81.7%	100%
일본	2,184,121	1,855,197	-	11,770,271	23,788,914
	9.2%	7.8%	-	49.5%	100%

주: 1999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WTO, Statistics Service Page에서 재구성, (2004)

1999년 경우 한국의 inbound 관광객은 약 466만 명이었으며, 이중 46.9%가 일본관광객으로, 그리고 6.8%가 중국관광객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관광객은 72.6%로 나타나 inbound 시장의 일본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inbound 관광객 수가 843만 명으로 3국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이 중 11.8% 및 22.0%가 각각 한국관광객 및 일본관광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은 전체 중국 입국자의 59.6%로 나타나 역내관광의 비중도 비교적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inbound 관광객의 21.2%가 한국관광객으로, 6.6%가 중국관광객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inbound 시장의 약 65.9%가 동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역내관광의 비중이 중국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중국·일본 3국의 관광교류현황 분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3국간의 불균형적인 관광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송출객의 21.3% 및 20.3%가 각각 중국과 일본으로 관광을 가는 반면에 중국은 송출객의 3.2%만이 한국을 방문하며 일본은 송출객의 9.2%만이 한국을 방문하여 인접국가간의 관광교류 규모에 있어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표 III-6> 한·중·일 국적별 관광객 입국 현황(1999년)
(단위: 명, %)

국적 국가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태평양	세계
한국	-	316,639	2,184,121	3,380,795	4,659,785
	-	6.8%	46.9%	72.6%	100%
중국	991,979	-	1,855,197	5,022,581	8,432,296
	11.8%	-	22.0%	59.6%	100%
일본	942,674	294,937	-	2,925,323	4,437,863
	21.2%	6.6%	-	65.9%	100%

주: 1999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자료: WTO, Statistics Service Page에서 재구성, (2004)

(2) 한·중·일 관광시장 전망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0년에 1억9천5백23만 명, 2020년에 3억9천7백24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한국·중국·일본 3국은 2010년에 7천5백46만 명, 2020년에 1억5천32만 명의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여 전체 동아시아·태평양 관광시장의 38.7%(2010년), 37.8%(2020년)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되어 그 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10년에 1억9천3백19만 명, 2020년에 4억4백87만 명이 해외로 여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한국·중국·일본 3국은 2010년에 1억1백42만 명, 2020년에 2억6천3백17만 명이 해외로 여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해외 여행객수의 52.5%(2010년)와 65%(2020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유치할 전략 및 장기적 수용계획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외여행객 중 75.2%(2010)와 77.7%(2020)가 동아시아·태평양 역내지역으로 여행할 것으로 전망²되어 역내 관광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 유치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표 III-7> 한·중·일 관광시장 전망

국가	외래객 입국전망		내국인 출국전망	
	2010년	2020년	2010년	2020년
중국	61,800,000명	130,000,000명	30,350,649명	100,000,000명
일본	7,108,881명	10,055,432명	59,846,074명	141,500,000명
한국	6,550,015명	10,272,050명	11,221,725명	21,669,332명
3국 합계	75,458,896명	150,327,482명	101,418,448명	263,169,332명
동아시아·태평양	195,230,000명	397,240,000명	193,190,000명	404,870,000명

자료: WTO, Tourism 2020 Vision,(2002)

² 2010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여행하는 해외 여행객 수, 즉 역내 관광객 수는 146,880,000명(2010년), 308,710,000명(2020년)으로 보고되었음.

3.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현황 및 전망

가. 한·중·일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1) 중국의 대 한국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가) 중국의 대 한국 관광교류 현황

중국인 방한 외래객은 1992년 8월 국교 수립 이후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중국인 방한 외래객수가 대폭 증가하였는데 증가분의 대부분이 기존 단기상용 등의 목적이 아닌 순수 관광목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국간 국교 수립으로 해양노선은 물론 항공노선까지 꾸준히 확대됨으로써 인적교류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1998년 5월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국가에 중국정부가 한국을 포함함에 따라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8년 한국은 중국 outbound 방문 목적지의 4위를 기록하였으며, 1999년에는 일본, 미국에 이어 3위의 방문목적지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0년 6월부터는 종전의 9개 성시만이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대상지역이 중국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주요 방문 목적지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표 III-8> 연도별 중국인 입국자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78	200	214	211	317	443	482	539	513
증감율	26.5	11.9	7.3	-1.7	50.3	39.8	8.9	11.9	-4.9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20대 후반에서 40대 연령층이 방한객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특히 남성은 30대 초반, 여성은 20대 초반이 가장 많은 것

으로 나타난다. 중국인 방한 평균 체제일은 1997년 11.6일, 1998년 8.3일, 그리고 1999년 10월 말 기준 6.2일 등으로 평균체제일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단기 관광목적 여행자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방한 중국인은 개별여행과 단체여행의 비율이 3.5:6.5의 비율을 나타내 단체여행 비율이 높으며, 한국 방문 중 숙박과 쇼핑에 지출하는 경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중국인의 한국여행 만족도를 살펴보면 관광내용, 숙박시설 등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음식에 대해서는 큰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언어소통 불편이 최고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표 III-9> 방한 중국인의 연도별/항목별 지출경비 현황
(단위: US\$)

구 분	1997	1998	1999
총경비	1,469	1,856	1,391
숙박비	395	474	483
식음료비	262	334	230
교통비	133	168	91
유희비	130	164	78
쇼핑비	403	640	447
기 타	138	77	62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999).

한국관광공사, 『방한외래객추이분석』 (1999).

(나) 중국의 대 한국 관광교류 전망

세계관광기구(WTO)는 2020년 중국의 아웃바운드 인구가 1억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중국인 출국자의 80% 이상이 동남아 및 극동 지역에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은 인접한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중국 아웃바운드의 50% 이상이 자치구인 홍콩과 마카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과 중국정부가 내수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은 무한한 성장시장만으로 중국을 보기에선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원화가치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이 높은 다른 주변국들과의 경쟁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6월 이후 중국 모든 지역에서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그 영향 또한 장기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싱가포르, 홍콩 등 화교인구 비율이 높고 중국 문화유산과 관련성이 많은 지역에서 현대화된 도시, 오락,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의 중국인들의 선호 목적지 변화는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국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중국인 해외여행객은 상당히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 방문 중국인 증대를 위해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테마파크(홍콩, 일본), 카지노(마카오, 말레이시아, 호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중한 분석과 전략수립이 요구되며, 방한 중국인들의 한국방문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숙박과 음식 등 국내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중국관광객의 경우는 한국체류시 적정 가격의 숙박시설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 확충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 일본의 대 한국 관광교류 현황 및 전망

(가) 일본의 대 한국 관광교류 현황

일본인 해외여행은 1991년 걸프전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한 이래 일본 거품 경제 붕괴에 의해 값싼 해외여행 상품을 이용한 해외여행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한국 방문 일본인들의 입국 추세도 1991년, 1992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이후 1995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그러나 1996년에는 한국의 물가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 일본여행사의 한국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 기피 등으로 역시 마이너스 성장을 나

타냈으며, 이후 2000년까지는 다시 성장 추세를 지속해왔다.

하지만 2000년 이후 방한 일본인은 다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2003년 현재 방한 일본인은 1998년 보다 적은 약 180만 명으로 과거 1999년 전체 방한 시장의 절반 수준인 46.9%에서 2003년 37.9%로 감소하였다.

<표 III-10> 연도별 일본인 입국자 현황

(단위: 천명, %)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1,667	1,527	1,676	1,954	2,184	2,472	2,377	2,321	1,802
증감율	1.4	-8.4	9.8	16.6	11.8	13.2	-3.8	-2.4	-22.3

자료: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년도.

방한 일본 남성 입국자의 추이는 전체적으로 변화가 적은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1990년 이래 20~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나타내어 1990년 남성 대 여성이 8:2의 비율을 보였던 것과 비교할 때 1999년에는 6:4의 비율을 보임으로써 여성 방문객 증가가 방한 일본인 증가세를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인들은 한국 방문시 남녀 모두 2박3일 체제자가 가장 많은데, 여성의 경우는 1994년 이후 그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20~3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경우 대개 직장인으로 주 5일 근무제가 완전히 정착된 이후 주말을 이용한 한국 방문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방문시 평균체제일은 1997년까지는 평균 3.1일 정도였으나 1999년 2.8일을 기록하여 체제일이 다소 단축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전체외래객 4.7일 보다는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1인당 지출 비용 역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반대로 한국이 일본 국내여행보다 더 친숙할 정도로 각광받는 단기 여행 목적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방한 일본인은 개별여행보다 단체여행을 선호하며(4:6), 한국 방문 중 쇼핑에 지출하는 경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인들이 한

국에서 주로 쇼핑하는 품목은 김치와 김 등을 포함한 식료품이 많고, 그 다음은 의류, 피혁제품을 선호하며 화장품을 구입하는 일본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11> 방한 일본인의 연도별/항목별 지출경비 현황
(단위: US\$)

구 분	1997	1998	1999
총 경비	1,397	1,118	1,253
숙박비	383	275	294
식음료비	240	191	184
교통비	80	68	93
유흥비	145	147	140
쇼핑비	426	362	447
기타	123	75	94

자료: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1999).
한국관광공사, 『방한외래객추이분석』 (1999).

그리고 일본인들이 한국방문 시 불편하였던 점으로는 상품강매행위, 화장실불결, 언어소통, 교통혼잡 등을 지적하고 있어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인의 한국여행 만족도 면에서는 관광내용, 음식, 관광안내원, 쇼핑 등에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며,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매우만족”의 비율이 다소 떨어졌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여행을 만족스러운 여행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일본의 대 한국 관광교류 전망

일본인 방한객 증가는 한국이 일본인들에게 국내여행을 대체하는 단기 해외여행지로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한국은 단일목적지로 하와이를 제치고 1위에 오르는 등 단기 해외여행지로서 확고한 기

반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홍콩과 싱가포르가 통화가치의 불변으로 쇼핑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다소 상실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20~30대 젊은 일본 여성들에게 주말쇼핑지로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20~30대 젊은 일본 여성들은 총 여행경비 중 쇼핑 및 숙박비에 거의 절반가량을 소비하는 등 소비성향이 높고, 최근 다양한 쇼핑지를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면세점 뿐 아니라 동대문 및 남대문시장 등 재래시장의 방문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고령화 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실버층의 해외여행 수요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기존의 일본 실버층은 장거리, 고급 여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건강관련 상품 및 고령자의 신체적 특징에 맞는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일 노선의 정체와 내국인 출국 급증으로 인한 좌석 확보 곤란은 방한 일본인 유치에 가장 큰 장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말의 한~일 노선 좌석 확보는 노선 증설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리고 김해공항, 부산항 등 다양한 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일본인 방한객의 77% 가량이 김포공항을 통해 방한하고 있다는 것도 방한 일본인 유치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 표적 계층은 20~30대 여성층, 40~50대 남성층, 실버층 그리고 수학여행 등의 청소년층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한·중·일 관광협력 현황 및 전망

(1) 한·중간 관광협력 현황 및 전망

한국과 중국간의 관광협력은 우리정부가 1984년 중국거주 한국인의 모국 방문과 친지 방문 목적의 방한을 허용한데 이어,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에 중국이 참가하였고, 동년에 세계관광기구 아·태지역위원회

(WTO/CAP) 북경회의 개최 시 한국대표가 참가한 바 있으며, '88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국가 여유국 부국장 일행이 WTO/CAP 서울 회의에 참석하여 양국간 관광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관광교류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하였다.

1989년 중국의 위해와 한국의 인천간 카페리 직항로가 최초로 개설되었고, 이어 서울~상해간 전세항공기가 출항하였으며, 양국은 1991년 상호대표부를 설치해서 비자발급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했으며, 1992년에는 정식으로 대사급 수교를 맺었다.

1993년 5월 한국·중국 해운협정체결, 1994년 10월 한국·중국 항공협정 체결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의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1994년 4월에는 한국인의 중국여행이 전면 자유화 되었다. 그리고 1994년 10월에는 중국 측에 관광진흥협의회를 제안하여 1995년 7월에 제1차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정례적인 협의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1995년 3월에는 한국관광공사 북경지사가 설치되어 양국간의 관광교류를 활성화하였고, 1998년 5월 중국정부가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지역으로 한국을 지정하여 9개 성·시³ 중국 주민의 한국여행을 허용하였고, 한국은 제주도를 중국인 무비자 지역으로 지정 개방하였다.

또한 1999년 11월에 개최된 제4차 한·중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하여 2000년 6월부터 중국 전지역 주민들이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양국간 합의함으로써 중국인의 한국여행이 급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 6월에는 한·중 관광교류 합의각서 작성하여 중국 전지역 주민의 한국방문을 허용했으며, 한국과 중국 전담여행사를 5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이후 철수한 중국 국가 여유국 서울사무소⁴ 설치와 한국관광공사의 상하이(上海) 제2지사 설치에 적극 협조기로 합의하였다.

2002년 8월 한국관광공사 상하이 지사가 설치되었고, 2003년 8월 중국

³ 북경시, 상해시, 천진시, 중경시, 산둥성, 안휘성, 강소성, 광둥성, 섬서성.

⁴ 해외현지 관광청에 해당함.

국가 여유국 서울사무소가 설치되었으며, 2004년 7월 중국 북경에서 “한·중 우호 문화관광대축제”가 개최되어 한·중 우호의 밤 및 한국문화관광 체험관 운영 등의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를 주제로 한 관광교류협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2004년 3월 중국국가여유국은 길림성여유국과 협력, 길림대학내에 한국어 가이드 양성반을 개설⁵하였으며, 국가여유국 유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국의 17개 자치단체, 90명의 학생들이 입학하여 1년 반 또는 2년의 한국어 전문교육을 받게 되었으며, 졸업 후에는 자신들이 소속된 여행사에서 전문 한국어 가이드로서 일을 할 예정이다.

(2) 한·일 간 관광협력 현황 및 전망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1985년 8월 30일 제13차 한·일 정기 각료회담에서 양국은 관광부문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한·일 관광진흥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1986년 제1차 협의회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 오고 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동 협의회를 통해 양국간 항공노선 증편, '1994년 한국방문의 해' 사업 협력, 관광부문 Y2K 관련 정보공유, '2002년 한·일 국민교류의 해' 및 2002 월드컵 축구대회 공동개최 계기 관광교류 협력사업 추진 등 양국간의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많은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해 왔다.

2003년 11월 제18회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에서는 양국간의 관광교류 현안사항에 대한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하였다.

⁵ 방중 한국시장의 중요성은 날로 커가고 있으나, 한국어 가이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한국시장을 개척하는데 주요 제약조건이 되어왔음. 이에 국가여유국은 관광산업 발전을 가속시키고 한국어가이드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급 한국어 가이드 인재를 양성기로 결정하고, 길림대학 외국어대학 한국어과에 한국어 가이드 양성을 위한 2개 반을 개설한 것임. 길림성은 조선족의 주요 거주지로서 한국과 북한이 인접하고 있어 한국어 교습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길림성여유국도 한국어 가이드 양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한국어 가이드 양성반 개설에 유리하게 작용했음.

첫째, 2003년 6월 한·일 정상회담 시 합의한 한·일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사업인 『Korea-Japan FESTA 2005』 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을 『Korea-Japan Visit Year 2005(가칭)』로 정하고, 구미주 등 제3국에 대하여 한·일 공동상품 개발 및 공동프로모션 실시, 양국의 자매도시간 이벤트 교류, 양국의 지역 전통문화예술 페스티벌 상호 참가, 양국 문화 이벤트 공동개최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둘째, 한국 수학여행단에 대하여 일본 입국시 비자면제⁶를 2004년 3월 까지 가능하도록 빠른 시기에 실행하도록 하여 한국학생들의 일본 수학여행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의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SARS 등으로 감소한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 및 한국관광공사, 일본 여행사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2003년 10월 북경에서 체결한 『한·중·일 관광협력 각서』를 기반으로 구미주 지역 등의 관광객 공동 유치를 목적으로 한·중·일 순환투어를 개발하고 공동 프로모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의 한국관광공사, 일본의 국제관광진흥기구 및 중국의 국가여유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2004년 1월 라오스에서 개최되는 'ASEAN +3 관광회의'시에, 3국의 관계자간 회담을 열어 한·중·일 관광당국자간 정례협의회 설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넷째, 지방관광 교류활성화를 위하여 양국의 자매도시간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한·일 여행업계의 제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의 KATA, 일본의 JATA 등을 중심으로 한 여행단체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2004년 7월 일본 도쿄에서 “2005 한일공동방문의 해” 선포식 및 양국간 관광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성명 조인식을 개최하고, “한일공동방문의 해” 사업은 한·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40주년이 되는 2005년을 “한·일 우정의 해”로 정함에 따라, 관광부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

⁶ 한·일양국은 2003년 6월 한·일정상회담시 발표된 방일 한국수학여행단에 대한 30일간의 노비자(No-Visa)조치를 동년 11월 5일 양국 영사간 협의를 통해 2004년 3월말부터 실시하고 있음.

로 양국이 공동 협력하여 양국 외래관광객을 2배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한·일간의 관광교류협력 사업은 참여정부 18대 관광정책과제인 “2008년 외래 관광객 1,000만 명 유치” 목표달성에 더욱 밝은 전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일·중 간 관광협력 현황 및 전망

중국과 일본의 관광교류협력은 아세안+3 정상회담과 한·중·일 관광협력 각서 체결 이후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일본의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대상지역 확대, 양국 공동 중국인 일본관광가이드 양성, 양국 수학여행단 노비자 실시, 중국의 일본인 관광객 노비자 실시, 2004년 중·일 교류의 해 지정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일·중 관광교류 확대를 위하여 중국인단체관광객 비자발급 대상 지역을 2003년 9월부터 기존의 북경, 상해 광둥성의 2개시 1개성의 3개 지역에서 3개 도시 5개성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2004년 5월 중국의 초, 중, 고교생이 수학여행으로 일본을 방문할 경우 2004년 여름부터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번에, 비자 면제 대상으로 정해진 중국의 수학여행자에 대해서는, 2004년 4월부터 비자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은 중국에서도 최근 해외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가 늘기 시작하여 일본 국내 여행사도 중국 수학여행 단체 유치에 힘을 쏟기 시작 했으며 외무성에서도 잠재적인 수요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규제 완화를 단행하기로 한데 있다.

반면에 중국정부는 '평화우호조약 체결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양국간의 민간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일본인 여행자에 대한 단기비자 면제조치를 2003년 9월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친지 방문 등 15일 이내 단기방문자가 모두 포함된다.

또한 양국은 중국인 일본 관광가이드 양성사업7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발전에 따른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서 일본의

역사나 문화, 관광정보가 일반 시민에게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일본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중국인 가이드를 육성하여, 일본을 알리고 양국의 관광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2004년을 "중·일 교류의 해"로 정하고 정부차원 및 민간기구의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4) 한·중·일 간 관광협력 현황 및 전망

(가) 한·중·일 NTO 공동 마케팅 실시

한국·중국·일본 3국 관광공사(NTO)는 2004년 3월 3개국 연계 여행 상품 개발 위해 공동 마케팅 진행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미국 주요 여행업체 11개사를 대상으로 3개국, 13박 14일 팸투어를 실시하였다.

동 팸투어는 2003년 10월, 한중일 3개국 정부간 관광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것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마케팅과 동북아 관광권역을 형성할 수 있는 여행상품의 개발을 위한 첫 시도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장거리 시장에서의 단체 관광은 전무한 상태여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3개국의 공동여행상품은 그간 과다 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었던 각국 정부 및 여행업자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환영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나) 한·중·일 관광교류협력 포럼 개최

2004년 4월 제53차 PATA 한국지부 총회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면서 다양한 교류협력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먼저 한국은 한국·중국·일본 3국간 Long Distance Markets 공동 증진을 위한 민간부문 관광협력 방안을 제안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첫

⁷ 일본, 중국 양국이 2004년 가을, 일본 관광가이드 양성학교를 개설할 계획이며, 해외여행 가이드 육성기구 설립은 중국에서 처음 있는 일임.

째, 2005년 한·일 공동 방문의 해에서 양국간 다양한 문화교류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예로 인기 연예인의 상호 방문, 양국간 명예대사 위촉 및 방문, 양국 전통문화공연 교환 공연, 양국 우수 관광사업체 수상, 양국 지방 정부의 교환프로그램 증진, 청소년 및 스포츠 교류 확대 등이었다.

둘째, 한국·중국·일본 3국 NTO의 공동 홍보활동을 제안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3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점이 많아 3국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펼치면 시너지효과가 많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NTO들의 정기적인 마케팅 회의를 통하여 공동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고, 강점에 대해 상호교환 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한국·중국·일본 3국을 하나의 브랜드로 패키지 상품화하여 공동 마케팅을 펼칠 것을 제안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타 지역을 대상으로 3국 공동 팸투어를 실시하고, 3국 NTO의 네트워크 구축도 제안하였다

한편 중국은 한국·중국·일본 3국간 공동 사업으로 첫째, 3국을 경유하는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둘째, 3국을 경유하는 관광코스에 세계 100대 미디어 및 세계 100대 여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실시 셋째, 엑스포, 올림픽, 월드컵 등과 같은 대형 이벤트 홍보 및 촉진을 위한 협력 등을 제안하였다.

중국은 또한 한국·중국·일본 3국이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언어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첫째, 관광 가이드 및 해설사 프로그램 모델 개발 둘째, 100 관광 가이드 학습 관광 개설 셋째, 어학 훈련 및 고급 과정 개설 등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광을 일본 산업을 재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촉진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면서 현재 524만 명의 inbound 시장과 1,652만 명의 outbound 시장으로 불균형적 구성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 관광시장 구조를 개선하여 향후 2010년에는 inbound 시장을 1천만 명으로 성장시킬 것임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첫째, 관광입국 일본 실현의 개념 확산 둘째, 한 지역 한 매력물 갖기, 아름다운 경관 개발 등 일본의

매력물 정립 셋째, 일본 수상 TV 홍보를 통한 Visit Japan Campaign 등을 통해 일본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에 전파 넷째, 관광입국 일본 실현을 위한 환경 개선 다섯째, 관광입국 일본 실현을 위한 홍보 전략 등을 발표하였다.

(다) 서울·북경·동경 연계 관광마케팅 추진

한국·중국·일본 3국 도시는 2003년 7월 북경에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기로 합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및 국내 관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서울·북경·동경 연결 패키지상품 공동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공동패키지 상품 개발의 필요성은 서울·북경·동경 3개 수도가 미주·구주 등 원거리 관광객의 관광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동북아 3개 도시를 패키지로 연결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 있다. 또한 ASEAN 관광마케팅 전략에 대응하는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동북아 3개 도시의 통합관광마케팅 전략수립이 시급하고, 특히 이미지 고양 및 도시간 우호적인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브랜드의 이미지를 고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3개 도시 연계관광마케팅은 서울·동경·북경 3개 도시의 통합된 관광이미지 창출로 동북아 관광 매력도 제고하고, 3개 도시간 공동세일즈로 예산 절감과 대외 홍보효과 극대화하며, 공동 협력을 계기로 3개 도시간 공공 및 민간분야의 활발한 관광협력과 교류증진으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연계관광 마케팅사업의 테마로는 3도시 관광진흥사업 노하우를 교류하고 상호 배울 수 있는 사업⁸, 각 도시 관광진흥사업 상호지원 사업⁹, 3도시 혹은 2도시를 연결하는 투어상품개발사업 및 해외시장에서의 공동세일즈 사업¹⁰ 등이다.

⁸ 예로는 세미나, 심포지엄, 연수회 개최 등.

⁹ 예로는 홈페이지 상호링크, 인포메이션센터 상호이용, 각 도시에서의 프로모션 활동지원 등.

¹⁰ 예로는 3도시를 방문하는 투어상품 연구개발, 공동 세일즈 방법 검토 등.

4. 외국의 국제관광교류협력 사례분석

가. 아세안 국가연합(ASEAN) 사례분석

(1) ASEAN NTO(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회의

아세안국가들의 관광협력은 1978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정상회담 이후 점차 활발히 사업을 진행시켜왔다. 종래에는 무역 및 관광위원회(COTT: Committee on Trade and Tourism)와 산하 기구로서 관광 부위원회(SCOT: Sub-Committee on Tourism)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92년 폐지된 이후로는 아세안 국가의 관광공사들(NTOs)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세안 NTO들은 매년 2번 국명의 알파벳순으로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996년 9월 아세안 NTO 회의부터는 아세안의 사무국이 본 회의에 보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세안 대화상대국과의 관광협력사업 기금조달 및 운영에도 공동으로 관여하고 있다.

아세안 국가의 NTO들이 주관하는 활동들에는 단일 관광목적지로서의 아세안지역 마케팅과 환경친화적 관광산업 추진, 관광산업에의 투자유치 및 아세안 관광투자 안내책자 발간, 관광산업인력 개발 및 아세안 국가간 관광협력사업 계획 등이 있으며, 2002년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를 공동으로 개최한 바 있다.

(2)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

1998년 1월 10일에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회의에서 아세안 관광장관들은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에 있어 관광사업이 차지하는 역할을 재확인하고 회원국간의 지속적인 관광협력을 결의하였다.

특히 관광장관들은 아세안 NTO들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지원을 약속하며 아세안 관광협력을 위한 전략적 행동계획으로 첫째, 단일 관광목적지로

서의 아세안 지역 마케팅¹¹ 둘째, 관광업 투자 장려¹² 셋째, 관광인력 개발¹³ 넷째, 환경친화적 관광 및 생태 관광 홍보 다섯째, 아세안 회원국간 관광교류 간소화 여섯째, 유람선 관광의 민간사업체 참여 등을 수립하였다.

1999년 1월 28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차 아세안 국가 관광장관 회의에서는 하노이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관광부문 우선 사업의 이행계획을 결의하였다, 즉, 아세안 국가 장관들은 ‘2002년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를 위한 협의에서 아세안 지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 및 아세안 국가간 관광장려를 결의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필리핀은 ‘2002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착수, 브루나이는 21세기 아세안 지역의 공동 마케팅을 위한 전략연구 수행, 인도네시아는 2001년까지 관광정책 및 기획 분야의 새 직능 및 신기술에 중점을 두는 아세안 관광훈련 센터의 네트워크 설립, 말레이시아는 관광교류와 소비자를 위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실시, 싱가포르는 2000까지 아세안 유람선 관광개발 연구 완료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아세안 회원국가간 관광서비스의 자유로운 흐름의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호텔신축, 리조트, 골프장, 여행업 등 관광산업 신규투자 사업체에 세금 감면, 관광관련 산업체에 주주권을 100%까지 확대, 수입 자본재 면세, 회원국 시장에서의 손쉬운 접근책 마련, 관광관련 산업에의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대지사용기간 확장, 관광 전문인력의 자유로운 교류, 신규 투자를 위한 자본재 및 홍보물자에 대한 신속한 세관통과 등의 사항을 결의하였다.

(3) 아세안 관광포럼(ASEAN Tourism Forum)

아세안 관광산업 협력은 공공기관과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아

¹¹ 구체사업으로 밀레니엄 아세안 방문의 해 지정, 최고수준의 관광마케팅 컨퍼런스 개최 등.

¹² 구체사업으로 관광투자 안내, 관광교류 자유화 등.

¹³ 구체사업으로 교육·훈련센터의 네트워크화, 위성 회계 시스템 도입, 관광객 훈련 등.

세안 관광포럼(ASEAN Tourism Forum : AFT)은 민간 관광업체들에 의해 유지되어 왔는데, 예를 들어 1999년 1월 싱가포르 AFT회의는 싱가포르의 호텔협회와 여행자협의회가 주관이 되어 개최하였다.

나. 일본·아세안 관광협력 사례

일본은 다케오 후쿠다 전 수상의 발의로 제안되었던 아세안 센터를 1981년 5월 25일 아세안측과 “무역, 투자, 관광에 대한 아세안 진흥센터 건립에 대한 협정”을 맺음으로써 설립하게 되었다.

아세안센터는 무역, 투자, 관광과 관련하여 아세안 사무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세안 센터의 설립목적은 아세안의 대 일본 수출 증진, 일본의 대 아세안 투자 증진, 그리고 일본의 대 아세안 관광 활성화 등이다.

일본과 아세안은 아세안센터를 통하여 1999년 인적 자원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관광 지원산업의 서비스 표준화 향상과 관련한 세미나, 일본관광 언어교육 등이 있다, 또한 일본인들의 대 아세안 관광을 진흥하기 위하여 아세안 센터는 ‘ASEAN Tourism Fair’를 개최하였으며, 일본 여행사들을 2000년 ASEAN Tourism Forum에 적극 참여시켜 아세안 관광에 대한 정보 및 지식을 축적하도록 장려하였다.

또한 아세안 관광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세안 회원국들과 함께 ‘JATA Travel Trade Show,’ ‘International Meetings Exhibition,’ ‘Tour Expo 99,’ ‘Asia-Pacific Travel Fair 99’ 등에 공동 참여하기도 하였다.

다. 한국·아세안 관광협력 사례

한·아세안간의 관광객 교류 및 협력은 제도적으로 개방되어 있고, 각국 NTO의 적극적인 관광홍보 활동, 여행업계의 판촉활동, 한·아세안간 관계 확대 및 친근감 확산 등으로 향후에도 상호 관광객 교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아세안 협력사업은 특별협력기금의 지원 아래 각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세안과 대화관계가 구축된 후 1999년 3월 기준으로 50건에 이르는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그 중 관광관련 사업은 7건에 불과하며 1995년 이후부터는 전무한 상태이다. 사업비 기준으로는 한·아세안 협력사업에 소요된 총 6,405,395달러 중 1,742,830달러가 관광관련 협력사업에 지출되었다.

그동안 한국과 아세안의 관광부문 협력사업을 위해 양측이 제안한 사업은 다양하지만 이 중 실제로 시행된 사업의 수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내용들은 아세안을 한국시장에 소개하고 한국 여행사들로 하여금 아세안이라는 여행목적지에 친숙하게 하여 한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아세안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여 보다 편안하고 원활한 아세안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왔다.

(1) 관광협력제안사항

1998년 제4차 한·아세안 대화에서 다음과 같은 관광부문 협력 사항을 제안하여 한국과 아세안국가간의 관광부문 협력사업의 틀을 마련하였다.

첫째는 경기침체에 의해 위축된 한·아세안 관광을 다시 진흥시키기 위해서 한국국민들에게 이국적이고 다양한 재미를 제공하는 관광목적지인 아세안 국가들을 재인식시키고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아세안 관광의 장점을 부각시킨다는 것이다.

둘째는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투어를 제공하는 사업체들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관광산업 재활성화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셋째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외래방문객들을 위한 패키지 투어 목적지에 아세안 국가를 포함시켜 월드컵게임을 관람하려는 외래관광객의 한국방문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세안 관광을 장려한다는 것이다.

(2) 한·아세안 관광협력 프로젝트

1990년에 아세안 관광소위원회의 협력사업은 아세안 국가 혹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어 가이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3단계의 교육과정이 제안되었으며, 이는 제4차 아세안 상임위원회에서 협력사업으로 확정 공식화되었다.

동년에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공동위원회에서는 아세안 관광안내원에 대한 한국어 교육실시 및 한국어 교관 아세안 국가 파견 등의 협력사업이 제안되었으며, 1992년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아세안 관광안내원 교육실시가 제안되었으며, 아세안 국가 대상 한국관광 설명회 개최가 제안되었다.

1992년도 이후 제안된 한·아세안 관광부문 협력사업으로는 관광분야 전문인력 교환연수, 한·아세안 관광협력 협의체 구성, 운영, 아세안 서울위원회 ‘아세안 관광전사회’사업 제안, 교통부, 관광분야 전문인력 교환연수사업 수정 제안 (1993.2), 교통부, 관광분야 전문인력 교환연수사업 시행 계획 제출 (1994.1), 아세안측, “한국의 관광 및 소비시장을 위한 아세안 관광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안 (1994. 8), 문화체육부, ‘95 한·아세안 협력사업 제안 (1995. 1), 아세안측, “아세안 관광산업 워크샵” 사업제안 (1997), 아세안 서울위원회, “ASEAN ROK Tourism Project/ASEAN Travel Fair” 제안 (1998), 매체홍보특집 제작 (한국측 사업), 문화관광부 주관 한·아세안 Travel Exchange, 아세안측, “Two-day Workshop on ASEAN Tourism for Korean travel Agents” 수정 제안 (1998. 3), 한·아세안 공동 R&D 사업 제안, 한·아세안 관광진흥 Forum, 한·아세안 여행업 세미나 개최, 국외여행인솔자 양성, 1999 강원 국제관광 Expo 참여 등이 있었다.

라. 중국·싱가포르 관광협력 사례

중국과 아세안의 관광협력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인 관광협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대표적인 중국·아세안 국가의 관광협력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은 중국과 싱가포르간의 관광협력이라 할 수 있다.

(1) 관광분야 고위급 쌍무회의의 구성

중국과 싱가포르는 1900년대 초 이래로 쌍방의 광역기초단체간 관광협력을 촉진해오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양국의 NTO에 의해 촉진되어온 관광에 대한 통계자료의 교류와 문화·예술 이벤트의 개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문화 아이템을 가진 각종 박람회, 싱가포르의 Chingay와 Hong Bao강 축전, 중국에서의 관광축제 등이 그것이다.

싱가포르와 중국사이의 방문객 흐름은 Two-way 방식으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인접국인 양국에 있어서의 이와 같은 관광협력의 가능성으로 인해 싱가포르와 중국은 1997년 11월 싱가포르 관광진흥위원회의 위원장과 중국 국가여유국의 국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고위급 쌍무회의를 구성하여 중국에 대한 관광 관련 투자의 촉진, 관광교육훈련 실시, 공동 마케팅을 위한 상호 관광협력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양국의 관광협력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7년 1월에 기본구상이 공식화된 중국과 싱가포르간의 관광분야 고위급 쌍무회의는 양국의 관광상호협력에 부속하는 정치적 이슈를 고찰하며, 상호 이해를 촉진하고 쌍방 관계를 강화하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있다.

(2) Win-Win Partnership 공감대 형성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의 관광산업은 많은 관광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왔다, 예를 들면 호텔, 관광매력물 개발, 식음료, 관광 운송서비스 면에서 다각적 사업과 함께 많은 여행 복합기업체들이 그들의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

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싱가포르의 투자지역으로서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 중추로서 부각되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분야 고위급 쌍무회의에서 양측은 양 국가와 지역에서 많은 관광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탐색하기 위해 아이디어, 자원, 전문기술을 합병할 중국 관광기업들과 싱가포르 회사 사이에서 win-win 파트너십을 형성하는데 인식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3) 관광투자촉진 환경 개선

싱가포르와 중국은 1995년 이래로 호텔 및 리조트, 관광 운송, 관광매력 개발, 테마 F&B와 레저시설 분야에서 중국에 싱가포르 투자를 공동으로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왔다.

1997년을 기준으로 계획된 모든 투자가 현실화된다면 현재까지 싱가포르 회사들이 중국의 관광 관련 프로젝트에 투자한 투자 총액은 총 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양국간 고위급 회의에서는 투자동기촉진, 항공 접근성 개선, 양국 공동투자 여행 대리인의 구성, 관광투자 촉진을 위한 피드백 채널 설립과 같은 정책적 이슈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4) 공동 관광마케팅 추진

베이징 고위급 쌍무회의에서 양측은 또한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여 중국과 싱가포르의 공동 마케팅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STPB와 CNTA는 싱가포르·중국을 연결한 여행 패키지를 위하여 이들 잠재적 표적 시장에 대한 서로의 견해를 교환하고 미래 공동 마케팅 협조 프로그램을 구상하기도 하였다.

(5) 공동 관광인력 교육 훈련 실시

관광교육훈련 협력은 중국과 싱가포르의 관광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주

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1997년의 경우 STPB와 CNTA는 양국 관광교육 훈련협회의 회원을 대상으로 많은 교류방문과 회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의 하나로 싱가포르 호텔협회 교육훈련센터(SHATEC)와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호텔훈련학교 중의 하나인 Jinling 호텔경영학부(JIHM)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파트너십이 추진되고 있다.

5. 시사점 종합

가. 공공부문의 선행적 협력

그동안 추진되었던 한중일 3국의 협력 사례 및 외국의 관광교류협력 사례로부터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교류협력의 주체는 공공부문에서 출발하여 민간부문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심에는 각국 관광공사(NTO) 및 관광기구(NTA)의 협력을 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출발선상에 NOT 및 NTA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할 것이다.

나. 관광장관회의의 상설화

두 번째 시사점은 관광교류협력의 최상위 기구로 관광장관회의와 같은 고위급 실무회의가 상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간의 교류협력이기에 이를 결정하는 최고 수준의 회의체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그 대표적 형태중 하나가 관광장관회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중·일 관광장관회의를 통한 관광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결정을 통한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점을 고려해야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관광포럼의 상설화

현황 및 사례분석을 종합해 볼 때 관광교류협력의 단계적 접근 방식 중 중간 단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관광포럼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공공 부문의 정책결정과 추진이 선행되고 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포럼을 통한 의견 수렴 및 개선될 점에 대한 점검 등이 이루어지는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관광투자 활성화 및 장애요인 제거

관광교류협력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국간에 관광투자부문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투자촉진 여건 마련과 장애요인 제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민간부문이 교류협력의 주체 내지는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행 단계이기도 하며 장기적으로 관광교류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실질적 목표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준비단계로도 볼 수 있다.

마. 소프트웨어적 접근

동북아 3국의 관광교류협력의 활성화되기 위하여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도적, 정책적 접근과 포럼을 통한 논의 구조의 확대, 그리고 투자 등을 통한 기반시설의 구축 및 연결고리 형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한·중·일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

1. 한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가. 한국의 국제관광 동향

(1) 방한 외래객 입국동향

방한 외래객은 1998년부터 8% 이상의 꾸준한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14.2%의 고성장을 기록하여 사상 처음으로 '방한 외래객 500만 명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2001년 이후에는 정체내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에는 방한 외래객이 3.3%의 감소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기록상 방한 외래객 감소가 1961년부터 한국관광통계를 집계한 이래 1974년(-23.8%), 1980년(-13.3%), 1996년(-1.8%)에 이어 네 번째 일로 9·11 미국테러 발생으로 인한 전세계 항공여행 위축이 외래객 감소의 주원인이었으며, 10.7 보복공격¹⁴의 영향과 주시장인 미국, 일본을 위시한 세계적 경기침체 또한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2년 상반기에는 2001년에 발생한 9·11 뉴욕테러사건의 영향 지속과 세계적인 경기침체,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에 의한 일본인 관광객 방한 저조로 4.3%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하반기에는 포스트 월드컵 효과와 동남아로의 '한류' 확산, 부산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12.3% 성장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3.9%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SARS등으로 다시 급감하여 전년대비 11.1% 감소를 기록했다.

¹⁴ 2001년 9월 11일 미국테러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 연합군은 9·11 테러발생 28일 후인 2001년 10월 7일 아프가니스탄에 보복공격을 실시하였음.

<표 IV-1> 방한 외래객 입국 동향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입국자수(천명)	4,250	4,659	5,321	5,147	5,347
성장률(%)	8.8	9.6	14.2	-3.3	3.9

주: 입국자수는 방문객 기준임.

자료: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 동향분석 2003, 제1호 (2003).

(2) 한국인 출국 동향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3,066천명에 불과했던 출국자 수가 1998년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년 100만명 가량 증가하여, 최근 5년간 연평균 24%의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2001년 미국 테러 발생의 영향으로 동년 9월과 10월에는 약간 주춤하였으나, 11월에 다시 성장세를 나타냈다. 내국인 해외여행에 호조를 보인 목적지는 일본, 중국,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 등으로 주로 근거리 지역과 안전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2001년 9·11테러 이후 12월까지 해외여행자수는 감소하였으나 2002년 들어 플러스 성장세를 보여, 2002년 연간 해외여행자수가 7,120천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내국인들의 해외여행 인기 목적지는 2001년 처음으로 일본을 제치고 중국이 1위를 차지한 이후 2002년에도 인기 목적지는 중국, 일본, 미국, 태국, 필리핀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2> 한국인 출국 동향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출국자수(천명)	3,066	4,341	5,508	6,084	7,120
성장률(%)	-32.5	41.6	26.9	10.5	17.1

자료: 한국관광공사, 위의 책.

(3) 국제관광 수지 동향

외환위기로 인해 1998년부터 3년간 이어졌던 관광수지 흑자시대는 2000년으로 끝이 나고 2001년부터 다시 적자로 돌아서 2002년에는 무려 23억불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 세계 경제의 침체로 인한 외래객 입국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관광수입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9.11 미국 테러사건의 발생으로 9월부터 외래객 입국이 격감하였기 때문이며 반면에 내국인의 해외여행 및 관광 지출은 이러한 여건변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는 포스트월드컵의 효과로 하반기 이후 외래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주시장인 일본,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인한 수입 감소 및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지출증대로 관광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였다.

외래관광객의 1인당 평균소비액은 989달러로 2001년 2,241달러에 비해 20.3%감소하였으나 내국인이 해외여행시 지출한 1인당 평균소비액은 1998년에는 IMF 여파로 인하여 908달러까지 감소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IV-3> 한국의 국제관광수지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수입액	전년대비증감율	지출액	전년대비증감율	
1993	3,475	6.21	3,259	-14.11	216
1994	3,806	9.54	4,088	25.44	-282
1995	5,587	46.78	5,903	44.39	-316
1996	5,430	-2.80	6,963	17.96	-1,533
1997	5,116	-5.79	6,262	-10.07	-1,146
1998	6,865	34.20	2,640	-57.83	4,225
1999	6,802	-0.92	3,975	50.57	2,827
2000	6,811	0.14	6,174	55.31	637
2001	6,373	-6.43	6,547	6.04	-174
2002	5,277	-17.20	7,642	16.72	-3,119
2003*	5,240	-11.5	8,140	7.47	-2,895

주: * 2003년은 잠정치.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나. 한국관광의 잠재력과 한계¹⁵

(1) 지정학적 입지와 인접 관광시장 측면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세계적인 대국의 연계 중심에 입지한 점은 전략적으로 활용할 경우 동북아 관광교류의 허브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비행기로 2시간 30여분 내의 거리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가 43개나 있으며,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여 2001년 기준 동북아 3국은 전세계 인구의 24.5%, 경제규모의 18.9%, 교역량의 14.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전세계 GNP의 27.0%, 세계 교역량의 3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2010년 미주를 제치고 세계 제2위 관광시장으로 부상할 전망이며, 2020년 전세계 여행객 4명중 1명이 방문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간의 교통연계망이 구축될 경우 동북아와 유럽, 해양과 대륙을 잇는 관문 역할 수행이 가능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 남북간의 교통망 연계는 경의선 철도연계가 추진 중이며,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동해안 임시도로 연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2) 역사, 문화, 자연자원과 계절성 측면

세계문화유산과 궁궐, 사찰, 전통음식 등 한국 고유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재 및 역사유적과, 古家·古都, 지역풍속, 특산물, 자연생태환경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생활문화자원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소재를 보유¹⁶하고 있다.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등 세계문화유산으로 13건이 지정되어 있

¹⁵ 참여정부의 관광부문 중기계획인 “관광진흥 5개년계획”상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¹⁶ 미국은 정부기관, 민간기업, 문화유적 관련단체가 협력하여 미국의 문화유적 투어코스를 지정한 “American Pathways 2000”을 백악관 밀레니엄 프로그램(White Millennium Program)으로 추진.

으며,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2,664건 등을 포함한 총 7,786건이 지정되어 있고 이 밖에도 개항역사, 근대유적, DMZ, 민주화 경험 등 근대화 관련 지명도도 높은 편이다.

자연자원 측면에서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적 특성으로 인해 수려한 해양경관자원이 풍부하나 수산업, 군사문제, 환경보호 등으로 활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일부 개발지역은 계획적 개발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는 등 잠재적 매력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계절 기후 중 특히 겨울철의 눈은 동남아지역 관광객들의 매력적인 관광소재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 겨울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관광비수기로써 사계절 전천후 관광의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전반적으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의 관광관련 활용도가 낮아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성과 지명도가 낮고, 자연자원의 활용은 지속가능한 개발이 아닌 난개발 또는 환경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3) 숙박·교통·안내 등 관광인프라와 서비스 측면

숙박시설의 양적부족·다양성부족·지역편중 등은 관광객의 불편과 고비용 구조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에 외래관광객 1,000만 명 입국 시 객실수요는 12만실에 이르러 현재 추세라면 6만실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관광호텔업은 전국 528개 업체 중 총 객실수의 약 57%를 차지하는 209개 업체가 서울, 부산, 제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국제교통연계성 부족, 출입국 절차 복잡 등도 방한 외래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시간·경비부담을 가중¹⁷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국 17개 공항중에 국제선 취항 공항은 6개 공항이며(인천, 김해, 제주,

¹⁷ 호주는 관광진흥정책인 ‘Tourism : A Ticket to the 21st Century’에서 “보다 경쟁력 있는 호주(A more competitive Australia)”를 세부전략으로 삼아 항공서비스 개선과 출입국절차 개선에 힘쓰고 있음.

대구, 청주, 양양) 이중 공항시설 부족으로 김해, 대구, 제주공항은 수년내에 한계용량에 도달할 전망이다. 특히 부산, 제주, 동해, 인천 등의 일반항만시설에 크루즈선 정박이 가능하나 현재 크루즈 전용터미널 시설을 갖춘 항만은 전무하다.

또한 관광안내정보 및 각종 예약서비스 부족으로 관광객의 불만을 초래하고 장기체재 유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외래관광객의 한국관광 최고 불편사항은 '관광정보입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4) 관광인적자원과 교육시스템 측면

대학, 전문대학, 각종 민·관 교육기관, 기업인력교육센터 등 인력교육시스템이 풍부하여 각종 교육기관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대량의 관광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전문적 교육프로그램과 현장연계 교육 부족으로 현장 실무 능력과 전문성이 미약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 또한 부족한 상황이다.

2003년 4월 현재 관광관련 대학 150개교에 29,81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2003년 6월 현재 관광종사원은 총 181,788명이며 그 중 지배인 3,021명, 통역안내원 13,589명, 현관·객실·식당접객 종사원 97,021명, 국내여행안내원이 68,157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관광목적지로서 유인요인 측면

획일적·양적 개발로 자원의 지속가능성, 질적 수준, 지역 특성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토지비용, 각종 규제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 및 확충이 부진하여 관광활성화의 구조적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관광지는 1990년 총 119개소에서 2003년 213개소 증가하였고, 관광단지 는 1990년 4개소에서 2003년 9개소로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지만 개발부진¹⁸, 난개발, 획일적인 개발 등의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비교할 때 홍콩은 란타우섬에 홍콩 디즈니랜드와 통쑹(Tung

Chung) 케이블카 사업 등 새로운 국제적 매력물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관광, 녹색관광, 문화·유적 관광, 그리고 모험 관광 등에 대한 유치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매력물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6) 관광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 측면

관광산업에 대한 왜곡된 시각에서 각종 규제와 일관성 없는 정책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신규투자 촉진과 경영개선에 장애가 되고 있다.

<표 IV-4> 수출산업과 비교한 관광관련 규제 현황

구 분	수출산업	관광산업
부가세 영세율	적 용	한시적용
전력요금	산업용	한시적용
환경개선 부담금	면제(배출부과금제 보완)	부 과
교통유발 부담금	면 제	부 과
외국인 산업연구생 고용	배 정	미 배 정

자료: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또한 대규모 리조트와 특급호텔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영기법이 낙후하여 생산효율성이 저하되어 있고 영세한 사업규모로 사업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새로운 관광산업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첨단 기술의 도입·활용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의 한류 현상 등 문화산업(영화, 음악, 한류)과, 정보통신산업(인터넷, 모바일), 물류산업(경제특구, 물류산업단지) 등 국가 선도산업과 관광산업을 연계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¹⁸ 2003년 기준 212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지만 이중 조성이 완료된 관광지는 12개소인 5.7%에 불과함.

(7) 국가이미지 및 관광이미지 측면

국제테러 위협 증대, SARS 확산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SARS에도 불구하고 2003년 전반기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대비 12.1% 증가하여 제주지역 전반기 관광객 입도객수의 최고치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드컵('02), 올림픽('88), 아시안 게임('86) 등을 통해 개선된 국가지명도와 이미지를 관광이미지로 파급 확산시키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이미지와 관광상품이 미약하고, 부정확한 인터넷 정보로 한국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다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지적되고 있다.

(8) 관광에 대한 총체적 인식 및 이해 측면

관광의 파급영향에 대한 문화적 인식과 관광산업의 전략산업 인식이 부족하고 정책지원 순위에 이중 잣대가 적용되어 관광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1989년 관광산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종에 포함하여 88서울 올림픽 이후 관광산업 도약의 기회를 상실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국민인식과 현실 관광행동의 불일치에 따라 건전한 놀이문화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고 이로 인해 단순한 음주, 가무, 도박생활문화 형성되고 청소년 수학여행이 불건전 여행문화 체험의 장으로 왜곡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다. 정부의 관광정책 변화추이

1990년대 이후 국민의 경제수준이 향상되면서 관광정책의 목표는 국제관광과 국민관광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경제적 측면의 외화획득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두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IMF 외환위기로 관광정책은 다시금 외화획득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까지 현실적인 관광정

책은 정책목표와는 달리 경제적 외화획득 정책에 보다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관광에 대한 정책적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관광정책의 추진주체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중앙집권적이고 정부주도의 정책추진에서 단계적으로 정책집행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자체의 관광정책역량이 아직 미약하여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부문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으나 관광사업자단체의 역량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관광시설 개발정책은 관광객의 행태변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양적 확충에서 질적 선진화로의 변화요구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민간부문의 시설개발은 종합적·복합적 개발형태에서 지역의 자원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시설개발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관광자원 개발은 과거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개념이 도입되면서 관광개발과 보존의 대립적 시각에서 관광을 통한 환경보전과 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라. 한국관광 환경변화와 전망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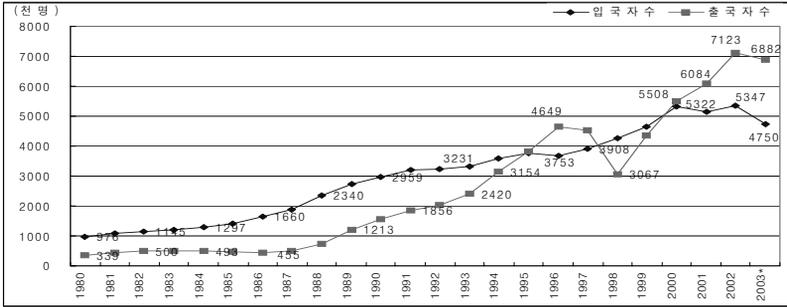
(1) 외래관광객 유치 침체 장기화 조짐

IMF 경제위기 이후 외래관광객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의 일인당 소비지출과 관광수입 총량은 1998년을 제외하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으로써 관광수지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외래관광객 증가율은 1980~2000년 연평균 9.0%의 성장을 기록하던 반면 지난 2001~2003년은 연평균 2.5% 감소를 기록하고 있으며, 외래관광객 평균 지출액 또한 1999년 1인당 1,460달러에서 2003년에는 1,107달러로 감소하였다.

¹⁹ 참여정부의 “관광진흥 5개년 계획” 상의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함.

<그림 IV-1> 방한 외래객 입국자 수 및 내국인 출국자 수



주 * 2003년은 잠정치.
 자료: 문화관광부, 위의 책.

(2) 국민해외 관광객 급증 추세 지속

국내 관광매력 부족과 열악한 관광활동 환경 그리고 고물가 관광구조는 IMF이후 경기회복과 소득증가에 따라 확대된 국민관광수요의 상당부분을 해외로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외래관광객 유치 정책과 국민해외관광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려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외래관광객 입국 연평균 증가율은 6.5%인 반면 내국인 출국 증가율은 연평균 24.9%에 달하고 있으며, 관광수지 적자는 2001년 174백만 달러, 2002년 3,119백만 달러 그리고 2003년에는 2,895백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3) 국민관광수요 급증 및 다양화 가속

주5일 근무제, 주5일 수업제 등 여가시간 확대로 관광부문의 새로운 사업 창출과 잠재시장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며, 국내의 관광수요는 2008년 5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증가추세와 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볼 때 실질적인 증가폭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 된다²⁰.

²⁰ 일본의 경우 1987년 주5일 근무제 시행후 초기 6년 약 15%, 이후 약 10% 관광

또한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여가 시간의 증대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 스포츠 활동 외에 근거리, 단기간의 국내외 여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휴가 분산 확대로 숙박관광과 장거리 관광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여가활용 및 여행패턴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5> 주간생활시간 변화전망

구 분	1997	2010	2020	비 고
생활필수시간	74.1	75.5	76.0	수면, 식사
노동시간	46.7	41.3	38.0	-
자유시간	40.9	45.2	47.8	관광, 여가

자료: 문화관광부, 위의 책.

또한 소득수준의 향상, 의학기술의 발달 및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에 따라 소자녀화, 핵가족화, 고령화 현상 등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 되어 노동연구원의 조사 및 예측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1980년대 1.4%대에서 2000년 0.71% 그리고 2023년에는 0%시대를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평균 자녀수는 1970년 4.53명에서 1999년 1.42명으로 감소하고, 국내 65세 이상 노령 인구 구성 비율은 2000년 7.1%에서 2010년에는 1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 및 가치관 변화에 따라 관광활동의 참여인구 증가가 예상되고 관광활동에 있어서도 가족중심의 관광활동, 노인층의 관광참여확대, 건강과 관련된 관광활동의 증가 등 전반적인 여가관광시장의 급속한 다양화가 예상되고 있다.

시장 성장.

(4)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개발 급증 추세

최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산업으로서 자연·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 개선 등의 효과 등을 기대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지방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비중 증대로 인해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지방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체계 변화가 진행 중이며, 특히 관광분야에 있어서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권한, 관광사업 등록 및 인허가 권한 등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권한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 관광정책 개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문화관광부 이외에 해양수산부의 어촌관광체험 마을, 농림부의 농촌관광, 환경부의 산림휴양촌 등 각 부처에서도 관광관련 정책지원 사업이 증가 추세에 있어 지자체 단위 관광개발 계획 및 사업추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남북관광 확대 및 한반도 국제관광여건 개선

금강산 관광²¹에 이어 개성관광이 실현되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한 북한의 관광개방이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의 관광매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리고 향후 북한을 경유하여 대륙횡단철도(TSR, TCR)와 아시아 고속도로(Asian Highway)²² 등이 연결될 경우 한반도는 동북아와 유럽을 연계하는 동북아 관광허브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²¹ 1998년 금강산 관광시작, 2002년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 2003년 금강산관광 육로 확대.

²² 한·중·일, 인도, 이란 등 아시아 31개국 14만km 연결 고속도로.

2. 중국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가. 중국의 국제관광 동향

(1) 방중 외래객 입국 동향

오랜 전부터 중국에도 관광서비스 활동이 있었으나 그대상은 주로 우방 국가의 단체였고 공식적인 국제대외업무에 불과하여 어떠한 경제적인 수익도 없었으며, 1978년에 이르러 입국인원수는 단지 180.9만 인(회)에 불과했고 그 중 외국인은 약 23만 명밖에 없었다.

2002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객은 9,791만 인(회)으로서 1978년의 54배로 성장했고, 그 중 외국인은 1,343만 인(회)으로서 1978년의 58배에 달했다. 이러한 성장속도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중국의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 세계경제의 불황, 미국의 '9.11'테러사건, 세계항공업과 관광산업이 큰 타격을 받고 마이너스성장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객은 여전히 10.5%가 성장하여 세계 관광기구는 "2001년 세계에서 관광산업발전이 가장 좋은 국가"라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의 입국 숙박관광객 수는 프랑스,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의 뒤를 이어 세계 제5위이고, 2002년 입국 숙박관광객 수는 제4위인 이탈리아의 93.2%에 이른다. 이러한 추세라면 몇 년 후에는 중국 입국 숙박관광객 수가 세계 4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2020년에는 인바운드 관광대국의 1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IV-6> 방중 외래객 입국 동향

(단위: 만 명(회))

연도	총계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교포	홍콩, 마카오 동포	대만 동포
1978	180.92	22.96	157.96	156.15	"
1979	420.39	36.24	384.15	382.06	"
1980	570.25	52.91	517.34	513.09	"
1981	776.71	67.52	709.19	705.31	"
1982	792.43	76.45	715.98	711.70	"
1983	947.70	87.25	860.45	856.41	"
1984	1285.22	113.43	1171.79	1167.04	"
1985	1783.31	137.05	1646.26	1637.78	"
1986	2281.95	148.23	2133.72	2126.90	"
1987	2690.23	172.78	2417.44	2508.74	"
1988	33169.48	184.22	2985.26	2933.56	43.77
1989	2450.14	146.10	2304.04	2243.09	54.10
1990	2746.18	174.73	2571.45	2467.54	94.80
1991	3334.98	271.01	3063.97	2955.96	94.66
1992	3811.49	400.64	3410.85	3262.57	131.78
1993	4152.69	465.59	3687.11	3517.78	152.70
1994	4368.45	518.21	3850.24	3699.70	139.02
1995	4638.65	588.67	4049.98	3885.17	153.23
1996	5112.75	674.43	4438.32	4249.47	173.39
1997	5758.79	742.80	5015.99	4794.33	211.46
1998	6347.84	710.77	5637.07	5407.53	217.46
1999	7279.56	843.23	6436.33	6167.06	258.46
2000	8344.39	1016.04	7326.80	7009.94	310.86
2001	8901.29	1122.64	7778.66	7434.46	344.20
2002	9791.00	1343.95	-	-	366.06
2003 1-11월	8284.61	1024.96	-	-	248.16

자료: CNTA, 『2003년 중국인바운드 관광 종합』 (2004).

중국을 방문하는 외래객의 국가별 비율은 1993년을 제외하면 일본이 1980년 이후 현재까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이 1990년대 초까지 2위를 차지해 오다가 1992년 한·중 국교수교 이후 한·중 교류가 급증하면서 한국이 2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표 IV-7> 방중 외래객 출발국의 순위 변화

순위	1981	1988	1991	1993	1995	2001
1	일본	일본	일본	전소련	일본	일본
2	미국	미국	미국	일본	한국	한국
3	영국	영국	전소련	미국	미국	러시아
4	호주	독일	영국	싱가포르	러시아	미국
5	필리핀	필리핀	필리핀	한국	몽고	말레시아
6	프랑스	태국	말레시아	영국	싱가포르	싱가포르
7	싱가포르	싱가포르	싱가포르	태국	말레시아	필리핀
8	독일	프랑스	독일	필리핀	필리핀	몽고
9	태국	캐나다	태국	독일	영국	영국
10	캐나다	호주	프랑스	프랑스	태국	태국

자료: CNTA, 위의 책.

(2) 중국인 출국 동향

1983년 중국에서 광둥성(廣東省)거주민의 홍콩여행 및 친지방문을 시험적으로 개방한 이래 국민경제의 고속도발전, 노동제도개혁 및 기타 조건의 개선에 따라 해외여행은 급속히 발전되고 낙관적인 발전 전망을 나타내고 있다.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인의 해외여행객의 연평균 증가율은 19.0%이고 그 중 개인 해외여행객은 연평균 33.5%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어 아시아에서 주목할 만한 신흥 여행객 수출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에도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해외여행객은

1660.23만(인)회로서 2001년보다 36.8% 증가하였다. 그 중 공공업무로 출국한 인원은 654.09만(인)회로 26.1% 증가하였으며, 개인출국은 1006.14만(인)회로서 44.9% 증가하여 개인출국이 공공업무 출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표 IV-8> 중국인 출국 동향

(단위: 만인,회)

기간	총 출국자수	증가율	개인출국자수	증가율
1992	292.87		119.30	
1993	374.00	27.7%	146.62	22.9%
1994	373.00	-0.2%	164.23	12.0%
1995	152.05	21.1%	205.39	25.1%
1996	506.07	12.0%	241.39	17.5%
1997	532.39	5.2%	243.96	1.1%
1998	842.56	36.8%	319.02	30.8%
1999	923.24	9.6%	426.61	33.7%
2000	1047.26	13.4%	563.09	32.0%
2001	1212.31	15.9%	694.54	23.3%
2002	1660.23	36.8%	1006.14	44.9%

자료: CNTA, 위의 책.

중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 국가도 계속 늘어나 이집트, 터키 등도 중국인의 해외여행 목적지로 개방되었으며, 해외여행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행사도 67개에서 528개로 증가하였다.

현재까지 중국 국무원은 28개 국가와 지역을 중국 국민의 자비출국여행 목적지로 허가하였으며, 동시에 거의 모든 인접국가와의 변경관광을 개방하였으며, 홍콩, 마카오지역의 출국관광규모도 계속 확대해가고 있다.

1990년대 까지를 기준으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목적지로는 홍콩, 마카오, 태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등의 순으로 나타나며, 구미주 지

역에서는 미국, 독일, 호주 순으로 비교적 많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추세는 중국 정부의 자국민 해외여행 자유지역 제한과 상당부분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 중국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지역 확대와 경제성장에 따른 가처분 소득 및 중산층의 증가²³ 그리고 중국인들의 목적지 선호도에 따라 향후 중국인의 주요방문지역의 분포는 변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IV-9> 중국인 방문목적지 분포 상황

(단위: 인, 회)

목적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태국	NA	NA	261237	258567	380619	469707	452510	604472	813596	704463
싱가포르	41709	93984	230338	167468	203679	226437	235267	293415	372685	434223
말레이시아	12800	46811	81874	95789	103130	135743	158679	159852	190851	425246
호주	16400	18700	22300	29700	42600	54800	63800	73300	92960	124400
뉴질랜드	2596	3612	4301	6487	8918	13646	17551	16410	23241	27522
일본	130487	183220	206743	193486	220715	241525	260627	267180	294937	NA
한국	78640	86865	99957	140958	178359	199604	214244	210662	316639	NA
미국	76000	124000	177663	157887	166520	198759	209609	208930	191175	NA
홍콩	875062	1149102	1732978	1943679	2243245	2389341	2364223	2671628	3206452	NA
마카오	15157	150516	272143	245320	543240	604227	527927	1317538	1630643	NA
필리핀	4873	6528	7011	9259	8606	15757	19093	24252	21220	NA
라오스	3086	27481	16870	2473	4076	16707	17661	15802	20269	NA
독일	NA	NA	NA	91825	107779	1245519	137372	156329	170120	NA
영국	NA	NA	NA	20000	31000	31000	29000	32000	46000	NA

자료: CNTA, 위의 책.

²³ 중국 국가정보센터의 예측에 따르면 향후 5년 내에 중국에는 2억 인구가 중산계층으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산계층은 안정적인 소득이 있고, 자가용을 구입할 능력을 갖췄으며, 수입을 여행, 교육 등에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함.

(3) 국제관광수지 동향

1978년 중국의 관광 외화수입은 2.63억 달러로 세계 41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2년 중국의 관광외화수입은 203억 달러로서 1978년의 78배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2001년의 경우 여타 국가들이 9.11테러와 경제불황 등으로 정체내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을 때 중국은 관광외화 수입 면에서도 전년대비 9.7%라는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중국의 관광외화 수입은 1978년 세계 제41위에서 2002년 현재 미국,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의 뒤를 이어 세계 5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공헌도도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2001년 중국관광산업이 총수입은 4,995억 위엔으로서 당해 국내총생산인 95,933억 위엔의 5.2%를 기록하여 중국의 관광외화수입은 중국서비스무역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IV-10> 중국의 국제여행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구 분	1978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수 입	2.6	120.74	126.02	140.99	162.31	177.92	203.90

자료: CNTA, 위의 책.

중국인의 해외여행소비는 1983년에 5,300만 달러에서 2000년 131.14억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

나. 중국의 관광진흥 정책

(1) 관광정책의 목표 및 과제

중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 관광자원이 풍부한 나라 중의 하나이나 관광산업은 매우 늦게 시작되었고 상당한 발전에 들어 서게 된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 초기에 등소평²⁴은 20세기 말까지 중국의 관광외화수입은 100

억불이란 목표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미 1996년에 달성하였으며, 등소평의 적극적인 제안과 중앙당 그리고 국무원의 지지와 개혁개방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하에 중국의 관광산업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90년대까지 놀랄만한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1996년 등소평이 건재할 때에 중국의 관광산업에 의한 외화수입은 102억불에 달하여 1978년도에 그가 제기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이후 중국 국가여유국은 중국의 기본국정과 관광산업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20세기 1990년대 말에 ‘인바운드 관광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국내관광을 적극적으로 발전하며, 아웃바운드관광은 적당하게 발전한다’는 관광산업발전의 전체적인 방침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기초하여 중국국가여유국은 2015년과 2020년을 목표로 한 중국관광 발전구상을 담은 『십오(十五)계획(2001~2005)』에서 중국은 향후 20년 간 아시아관광대국에서 세계관광강국의 역사적인 비약을 이룩해야 한다고 목표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은 중국관광의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였다.

첫째, 관광자원 보호정책의 추진이다. 관광자원은 관광산업발전의 기초로서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과 사람과 자연의 공생이론에 근거하여 예방과 정비를 결합하는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따라서 관광산업 발전계획을 확실히 수립하고 높은 수준의 개발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둘째, 형상(이미지)선전의 강화다. 중국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광객의 수용을 공고히 한 기초에서 새로운 관광시장을 개척하여 관광객의 끊임없는 증가를 도모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상품에 대한 판촉과 선전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시장에서 중국 국가의 이미지 선전을 강화하며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중국관

²⁴ 등소평은 중국에서 최초로 자원의 종합이용과 신흥경제산업의 인식수준에서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기한 사람으로, 그는 1978년 10월에서 1979년 7월까지의 10여 개월 내에 관광산업진흥에 관하여 5차례의 중요한 발언을 하였음.

광산업의 흡인력을 계속 증가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관광정보 네트워크의 적극적 구축이다. 정보네트워크 구축은 세계 관광강국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부문으로 2001년 1월 국가여유국은 전국관광발전회의에서 관광산업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장기적 목표는 ‘3망1고(3網1庫)’의 실현이라 제시한 바 있다. ‘3網’은 중국관광부문의 행정 업무망, 관광부문의 업종관리망, 관광부문의 대중정보망²⁵을 말하며, ‘1庫’는 전국 관광종합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이 ‘3網1庫’건설은 이미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세계로 진출하는 중국관광의 표준화작업이다. 중국의 관광표준화 작업은 최근 매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어떤 측면에서 국제사회와 비교해보면 이미 선진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987년 중국에서 처음으로 호텔에 별을 다는 평가표준을 내놓았는데, 이는 중국 관광산업 표준화 건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최근 16개의 관광표준을 반포(국가표준11개, 업종표준5개)하였는데 세계에서 관광산업표준을 가장 많이 반포한 국가다²⁶. 2년 내에 중국관광산업국가표준과 업종표준의 수량은 40여 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표준화 작업은 관광산업관리 및 경영서비스의 기술적인 기초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관광안전관리의 강화와 안전한 관광목적지라는 인지도를 강화이다²⁷. 미국의 ‘9.11’사건발생 이후 안전요소는 관광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관광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안정, 사회안정, 경제의 고속성장 등을 활용한 인지도 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²⁵ 중국 관광사이트는 2001년 말 중문판과 영문판을 내놓았는데, 일일방문횟수는 평균 30,000회 이상으로 중앙 각부서의 정부공식사이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하고 있음.

²⁶ 16개의 관광표준 중 관광구역(지점)표준 등은 중국에서의 창조된 관광표준이며, 이 외에 10여 개의 국가표준, 4개의 업종표준을 연구 중임.

²⁷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는 ‘중국은 세계여행객이 가장 원하는 목적지 중의 하나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는 강점 외에 소비자의 인식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함.

여섯째, 중국이 2001년 11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시의 약속에 대한 실현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중국관광산업은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가입 시의 약속을 적극적으로 현실화하면서 관광시장은 끊임없이 새로운 개방조치를 취해왔다. 그 결과 WTO관련 국가의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기도 하다.

일곱째, 우수한 관광도시²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중국과 세계관광기구의 대표는 적극적인 접촉을 통하여 <중국최우수 관광도시표준체계(中國最佳旅遊城市標準體系)>의 편성에 대한 합동작업의향을 확정하고, 협동편성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우수관광도시’조성 확산을 통해 정부주도형 발전전략을 중국 각지에서 추진하였으며 관광도시의 현대관광기능과 관광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여덟째, 관광법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관광법제의 개선은 커다란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국무원과 국가여유국은 일련의 행정법규와 규정을 반포하였으며 지방관광법제 개선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정부는 각지의 관광입법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일항목의 관광법규 제정도 추진중에 있다. 중국이 법에 근거하여 관광을 관리하는 것은 중국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2) 중국의 주요 국제관광진흥 계획 및 정책

관광산업발전에 대한 중국정부의 의지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2015년과 2020년을 목표로 관광발전계획을 구상한 『십오(十五)계획(2001~2005)』과 2001년 1월 국무원이 주최한 “전국관광발전회의” 그리고 2001년 4월 11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관광산업발전을 가속화시

²⁸ 2001년 ‘중국최우수관광도시’ 칭호를 얻은 도시로 지금 시로는 韶關市, 清遠市, 陽江市, 三明市, 濰博市, 九江市, 常州市, 溫州市, 梧州市, 錦州市, 洛陽市가 있으며, 현급 시로는 東陽市, 桐鄉市, 青州市, 州市, 都勻市가 있음.

키는 통지(〈關與進一步加快旅遊業發展的通知〉)(國發[2001]9號)’ 등은 중국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포괄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중국국가여유국이 발표한 『십오(十五)계획(2001~2005)』은 향후 20년 간 중국이 아시아관광대국에서 세계관광강국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세계 5위인 관광외화창출을 세계1위로 높이고, 둘째, 인 바운드(in-bound)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세계 1위의 인 바운드 관광대국으로 도약하며, 셋째, 국내 관광소비 지출을 국제적 수준인 인 바운드 관광수입의 8배로 확대하며, 넷째, 중국인 해외여행 규모와 방문목적지를 확대하여 세계 4위를 달성하며, 다섯째, 중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관광경제의 비중을 세계적 수준²⁹인 10%이상으로 확대하며, 여섯째, 관광산업 서비스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향상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2001년 1월 국무원이 주최한 “전국관광발전회의”³⁰는 주룽지(朱鎔基)총리가 직접 중국 관광산업 발전의 사고체계 및 구체조치의 배분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국관광정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중국 관광산업 발전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높은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현지상황에 맞게 관광산업을 육성시키며 관광기초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서부대개발의 과정에서 관광산업발전을 중시하고 업종의 관리를 강화하여 여행시장의 질서를 규범화시키며 서비스수준을 힘써 향상하고 관광외화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등이다.

또한 첸치천(錢其琛)총리는 중국 관광산업의 발전이 거둔 성과를 전면

²⁹ 세계여행관광협의회(WTTC)의 보고에 의하면 1996년 세계 관광산업총생산량은 세계 GDP 총량의 10.7%, 전세계관광객 소비지출은 전세계 소비총지출의 11.3% 그리고 세계관광산업의 자본투자는 세계투자총액의 11.9%를 차지함.

³⁰ 전국 관광발전회의는 10년 이래 국무원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문적으로 관광발전을 연구하는 회의로서 중국관광발전 역사에서 이정표의 의미를 갖는 회의라고 할 수 있음. 중국은 동 회의를 통해 중국관광산업이 2020년 세계관광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함.

적으로 검토한 후 21세기 전반에 대한 중국 관광산업 발전의 임무와 목표를 제기하였으며, 이와 함께 앞서 설명한 ‘十五’ 계획 기간 중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취해야 할 문제도 명확히 제시하였다. 또한 각 성(자치구, 직할시) 정부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지도능력과 지원수준을 강화 및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고 관련 국가부문사이의 원활한 협조를 요구하였다.

그리고 2001년 4월 11일 국무원에서 발표한 ‘관광산업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통지(<關與進一步加快旅遊業發展的通知>)(國發[2001]9號)’에서는 관광산업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 통지에서는 관광산업의 발전이념, 관광대국의 목표설정,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발휘, 관광산업발전의 규모를 확대하여 관광산업이 국민경제성장요소로의 작용의 활성화, 관광관리체제와 관광기업개혁의 확대, 관광산업에 대한 대외개방, 관광객 출입국수속의 간략화, 메이커상품 전략의 실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력이 강한 관광지역, 관광포인트 및 관광노선의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 관광산업의 모든 면을 담고 있다. 또한 동 문건(國發[2001]9號)을 관철하기 위해 전국 20여 개 성(자치구, 직할시)은 관광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중국은 자국민의 해외여행을 확대³¹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규정, 표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1997년 국무원(國務院)에서 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과公安部(公安部)의 공동으로 ‘중국국민 자비출국여행 임시관리방법<중국국민 자비출국려유관리잠행판법(中國公民自費出國旅遊管理暫行辦法)>’을 제정 반포하였는데, 이는 중국인 해외여행에 대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규제가 있는 적절한 발전을 골자로 한 지도방침을 확립함으로써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을 규범화한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또한 2002년에는 국무원에서 ‘중국국민의 해외여행 관리방법(中國公民出境旅遊管理方法)’을 제정하였으며, 국가여유국은 ‘여행사의 해외여행서

³¹ 현재까지 중국 국무원은 28개 국가와 지역을 중국 국민의 자비출국여행목적지로 허가하였으며, 동시에 거의 모든 인접국가와의 변경관광을 개방하였으며, 홍콩, 마카오지역의 출국관광규모도 계속 확대해가고 있음.

비스 질적 표준(旅行社出境旅遊服務質量標準)'을 만들어 국가차원의 정책법규측면에서 중국인의 해외여행의 발전을 보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중국인 해외여행시 외화휴대액도 확대 조정하여, 해외여행소비도 촉진하고 있다. 2003년 6월까지 중국의 외화보유액은 3,450억\$로 세계 최고이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에서도 중국인의 출국 시 외화휴대액을 2,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확대 조정하였다.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의 전체적인 발전추세에서 볼 때, 중국은 출국여행에 대한 제한적인 정책은 보다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여행목적지 국가의 개방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 중국관광의 발전기회와 전망

중국은 최초 개혁개방정책 실시 이후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고속의 관광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국가적으로 그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十五계획 수립 그리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2010년 상해 세계박람회 유치는 앞으로 중국관광발전의 기틀을 강화하고 발전속도를 가속화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세계무역기구의 가입은 관광산업에 큰 발전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은 관광관련 각 업종의 대외개방진척을 가속화하였으며 중국관광환경을 진일보 양성화시켰다. 이는 국제규칙에 부합되는 운영체제수립에 매우 유리하고 더욱 많은 외국투자를 중국관광산업으로 유치할 수 있으며, 중국 관광산업의 대외개방을 촉진하고 더욱 많은 객원과 관리체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경올림픽과 상해세계박람회 개최의 성공은 중국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속화 할 것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 개최의 최대 수혜산업은 관광산업으로서 인바운드 관광객의 대폭적인 증가, 관광목적지 인지도의 향상, 관광산업에 의한 외화수입의 증가, 관광산업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수준을 제고할 것이다.

셋째, ‘十五’기간 중 관광산업발전의 확대는 관광의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할 것이다. ‘十五’기간 중(2001~2005년) 중국경제와 사회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 새로운 단계의 주된 특징으로는 국민경제의 지속적, 안정적, 적정한 성장과 이에 따른 국민소득 수준³²의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관광부문에서는 관광이 서비스업으로서 그 경제점유율이 증가되고, 관광이 종합산업으로서 지역개발, 영역개발과정에서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며, 그리고 관광이 일부 지역, 특히 서부지역에서는 우위산업으로서 발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것이다.

3. 일본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가. 일본의 국제관광 현황

(1) 방일 외래객 입국 동향

1998년 일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은 전년대비 2.7% 감소한 410만 명이었고, 최근 4년간은 연평균 6.3%의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7.2% 높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는 엔고가 안정세로 전환되고, 대만 항공사의 대만~일본 노선에 대한 신규 참여와 전세기편 증가 등으로 인해 대만관광객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2001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0.3%라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9.11 테러로 인한 미국, 유럽 국가의 방문객 수 감소와, 각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동남아 국가 및 홍콩, 대만 등의 일본 방문객 수가 감소한 영향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단체여행 금지조치를 해제한 중국으로부터의 관광객이 11.3%나 급증하여 전체적으로는 소폭의 성장세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는 전년대비 9.8% 증가하여 사상 처음 방일 방문객 수 500만

³² ‘十五’말에 이르면 중국의 일인당 GDP는 1,40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명을 돌파하였는데, 이는 중·일 수교 30주년 사업 실시로 중국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FIFA월드컵 한·일 공동개최로 한국인의 방일관광이 호조를 보였으며, 나리타공항 제2활주로 사용 개시에 따른 항공노선 확대 등의 영향을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11> 방일 외래객 입국 동향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입국자수(천명)	4,106	4,438	4,757	4,772	5,239
성장률(%)	-2.7	8.1	7.2	0.3	9.8

주: 입국자수는 관광객(tourist) 기준임. *는 국토교통성(2003)자료임.

자료: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edition.(2003)

국토교통성, 『觀光白書』(2003).

(2) 일본인 출국 동향

일본의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1998년 출국자수가 전년대비 5.9% 감소하였으나 1999년 16,358천명, 2000년 17,819천명으로 각각 3.5%, 8.9%의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1년 16,216천명으로 일본인의 해외여행이 자유화 된 1964년 이래 4번째 사상 최대 9.0%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9.11 미국 테러와 엔저경향,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특히 제1의 일본 관광객의 방문국인 미국 방문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2002년에는 9.11 테러로 얼어붙었던 10대 후반의 수학여행 시장이 회복되어 출국 일본인 수는 16,523천명으로 1.9% 소폭 상승하였다.

<표 IV-12> 일본인 출국 동향

연 도	1998	1999	2000	2001	2002*
입국자수(천명)	15,806	16,358	17,819	16,216	16,523
성장률(%)	-5.9	3.5	8.9	-9.0	1.9

주: *는 국토교통성(2003) 자료임.
 자료: WTO, 국토교통성, 위의 책.

(3) 국제관광수지 동향

일본은 외래 입국자 수 보다 일본인 출국자 수가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1998년 25억 달러, 1999년 29억 달러, 2000년 28억 달러, 2001년 23억 달러의 지소적인 관광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이 무역 흑자의 증가에 따른 국가간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국민들의 해외여행을 장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IV-13> 일본의 국제관광수지 동향

(단위: US\$ 백만)

연 도	관광수입	성장률(%)	관광지출	성장률(%)	관광수지
1998	3,742	-13.5	28,815	-12.8	-25,073
1999	3,428	-8.4	32,808	13.9	-29,380
2000	3,373	-1.6	31,886	-2.8	-28,513
2001	3,301	-2.0	26,530	-20.1	-23,229
2002*	4,408	33.5	32,960	24.2	-28,552

주: *는 국토교통성(2003) 자료임.
 자료: WTO, 국토교통성, 위의 책.

나. 일본의 관광진흥 정책

(1) 관광정책의 목표 및 과제

일본의 관광진흥정책 목표는 첫째, 고령자, 장애인, 방일 외래관광객 등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실현하고 둘째, 관광 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전체가 관광객과 상호교류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관광을 진흥하며 셋째, 자연·사회 환경과 공생하는 동시에 매력의 지속적인 보유, 자원보전 및 발전, 주민이나 관광객의 만족도 유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토록 하는 자연·사회 환경과 공생하는 관광을 진흥하는데 두고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여행을 할 수 있는 여유 있는 휴가의 실현, 장애인, 고령자 등의 여행 촉진과 환경 정비, 관광 서비스 질의 향상,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 노력,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관광서비스의 고도화 및 유용성이 높은 관광통계의 정비, 저가 격화와 저가 서비스 체계의 다양화로 국내 여행 시스템의 변혁, 장기 체제형이나 거점형 여행을 위한 시설 정비 및 시스템 개발, 지역과 관광산업이 연계한 관광지역 진흥계획 등으로 지역의 주체성을 살리는 관광지 만들기, 지역 특색이 있는 관광소재를 활용한 관광매력의 증진, 국가간 관광협약과 관광관련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공헌 등으로 국제관광교류의 확대, 명확한 방침에 근거하여 협력 대상국을 중점화한 체계적인 국제협력의 추진, 국제 컨벤션 진흥, 국내여행의 저렴화 및 용이화 등으로 방일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자연환경, 문화 등의 보전을 고려한 관광지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일본의 주요 국제관광 진흥계획

일본의 주요 관광진흥 계획으로는 “글로벌 관광전략”계획과 “New Welcome Plan 21(방일관광교류 倍增계획)”이 있다.

“글로벌 관광전략”계획은 국토교통성에서 “경제재정운영과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 2002”(2002. 6. 25 각료회의결정)에 근거하여 관계성·청(關係省, 廳)과 협력하여 외국인 여행자의 방일을 촉진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동 계획은 일본의 불균형한 방일 외국인여행자와 일본인 해외여행자와의 격차³³가 지속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7년 방일 외래객 800만 명 유치, 2010년 1,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약 2조7천억 엔의 경제 파급효과와 15만6천명에 해당하는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로서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표 IV-14> 글로벌 관광전략의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외국인 여행자 방일 촉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it Japan Campaign³⁴: 정부, 지자체, 민간 공동 전개 · 수요 충족을 위한 여행상품의 개발, 판매 · 비자취득 용이 도모, 비자발급 규제 완화 등
외국인 여행자 수용태세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공항, 항만, 관광시설 등에의 접근 용이화 · 외국인이 즐길 관광교류공간 조성 · 출입국 수속 원활화
관광산업 고도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래관광객 상품개발 촉진: 여행업의 외국인여행자대상투어 기획·개발 · 엔터테인먼트 시설 충실 · 기업간 연계 강화(일본 투어리즘산업단체 연합회: 일본의 수화, 여행, 교통업 등이 출자한 사단법인)
실행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력 체제 · 국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관민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전략추진위원회’ 설치

자료: 유지윤, 『세계 주요국가 관광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³³ 2001년 아웃바운드 1,622만명, 인바운드 477만명, 관광수지 적자 약 3.5억 엔 기록.

³⁴ Visit Japan Campaign은 2007년 외래관광객 800만명 유치를 위해 국토교통성장관을 본부장으로 연간 약 20억엔의 예산을 투입하여 미국, 중국, 한국, 홍콩, 대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광고선전, 초청, 이벤트, 기획·지원, 육성 등을 실시하는 방일 외래객 촉진사업임.

“New Welcome Plan 21(방일관광교류 倍增계획)”은 2000년 5월에 주요 관광관계기업 및 단체를 망라하는 “관광산업진흥 포럼”에서 채택된 방일 외래객 배증을 위한 긴급제언으로서 종래의 『Welcome Plan 21』³⁵에 기초하여 외국인 방일축진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국가와 지방의 외국인 방일축진시책의 충실도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 관광업계의 외국인 방일축진시책의 충실도를 강화함으로써 관민이 일체가 되어 추진토록 제안된 계획이다.

JNTO에서는 동 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외래객유치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국제관광테마지구, 지방공공단체, 관광관련기업 등과 제휴하여 북미 및 한국, 중국, 홍콩, 유럽 등을 대상으로 방일여행 촉진 캠페인 및 인터넷을 통한 전세계로의 정보 제공, 컨벤션 유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정비, 웰컴 카드의 보급 등 외국인 여행자의 일본 내 여행비용 저렴화를 위한 시책 및 이에 대한 해외선전 등의 활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3) 일본의 주요 국제관광 진흥정책

일본의 주요 국제관광 진흥정책을 관광홍보, 관광상품개발, 외래관광객 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지원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홍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일본 이미지 만들기과 중국시장 유치홍보 강화 그리고 한국과의 광역 관광교류권 구상을 들 수 있다.

“일본 이미지 만들기”를 위해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수년간 일본을 상징

³⁵ 1996년 4월 일본 운수성(현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방일 외래 관광객 증진정책 계획의 하나로 2005년의 방일외국인수를 700만 명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국가, JNTO, 지방공공단체, 관광업계, 일반시민 등 민·관의 다양한 활동주체가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시책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6월 지방관광권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외국인관광객 다양화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외래객유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주요 추진 사업은 ‘새로운 국제관광 네트워크의 형성’으로써 일본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쿄, 오사카 등 거점도시와 지방 우수 관광권(국제관광 테마지역)을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질 높은 신 국제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외래관광객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하는 후지산의 그림과 현대 일본을 대표하는 신간선의 사진을 대표적인 광고 소재로 활용하여 광고·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진흥회(JNTO)는 1989년 아시아인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일본의 관광매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을 아는 여행(Closer to Japan)’이라는 영화 제작을 시작으로 영화를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중국 관광시장 유치 홍보 강화 정책으로서 세계 최대 관광시장인 중국국민의 방일단체관광여행을 촉진하고자 국제관광진흥회의 북경사무소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팜플렛 배포, 뉴스레터 발행 등 일본 관광정보 발신 및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마케팅 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지역을 포함한 광역관광교류권의 형성을 추진하고자 우리나라와는 ‘동아시아 광역관광교류권구상(EAST PLAN)’을 합의하고 관광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관광상품개발과 관련된 주요정책으로 일본은 1지역 1관광 운동을 실시하고 있다. 오이타현 히라마츠 전 지사가 제창한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의 관광판으로서 각 지역마다 한가지씩의 관광 볼거리를 보유하자는 운동이다.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역사유적거리의 보존과 정비, 농촌생활 체험 교류사업의 추진 등 각 지역의 관광소재를 개발하여 특화상품화 하려는 것이다.

셋째, 수용태세개선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국제관광테마지구 조성 및 쾌적관광공간 정비, 숙박시설 확충, 사전여행객정보 시스템 도입, 관광정보 안내체계 개선 등이 추진되고 있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은 외래객유치법에 기초하여 우수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숙박거점이 되는 지역을 네트워크화 하여 외국인여행자가 3~5박 정도 머무를 수 있는 관광루트를 정비하는 광역적 지역인 ‘방일 외래관광객 촉진지역(통칭 ‘국제관광 테마지구’)’을 조성하고, 2001년 2월 11개 지역의 국제관광 테마지구에 대한 일본 국제관광진흥회의 중점적인 해외선전을 시작으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광 테마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를 위해 테마지구 내에 그 지역의 역사, 문화, 자

연 등의 소개 기능을 갖춘 ‘국제교류거점’³⁶도 정비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99년부터 동 테마지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여행자가 루트화 된 살아있는 거리를 산책하도록 하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접하면서 주민과의 교류를 꾀할 수 있는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쾌적관광공간’³⁷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방일 관광객을 대비하여 관광수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민박, 저렴한 숙박시설이용 촉진사업, 국제교류촌 정비사업 등 숙박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항공기 승객들의 생년월일, 성명 등 신상정보를 전산화, 목적지 공항 입국관리소 등에 발송하여 사전 심사를 가능토록 하는 사전 여객정보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내외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던 일본 입국심사의 신속화를 도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외래관광객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Tourism Information Center를 운영하고 있으며 Tele-tourist 서비스, Travel Phone, 안내시스템 정비·확충, 명예통역안내원 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관광부문 정보기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역 한정 통역안내업 제도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의 각종 관광정보를 외국어 또는 일본어로 전자데이터화, 인터넷을 통한 제공, 일부 숙박시설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예약 가능 기능 등을 개선·정비하였다.

마지막으로 관광산업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으로는 컨벤션 개최 촉진, IT활용 강화, 관광인력 양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1994년 『국제회의 유치촉진 및 개최 원활화에 의한 국제관광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회의 관광도시 42개를 지정하고 일본 국제관광진흥회(JNTO)의 국제회의 유치조직을 강화하였으며 국제회의 관광도시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기부금 모금 및 교부지원을 통한 회의개최 지원 등 국제회의 지원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2000년부터 동북아의

³⁶ 현재 1개소 완성, 3개소 진행 중.

³⁷ 일본 전국 2개소에서 진행 중.

컨벤션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기존의 컨벤션 수용 시설을 대폭 개선 및 확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IT 활용 강화를 위해 관광분야에서 관광인프라 정비 및 확충을 위한 IT 활용 환경을 정비하고, 개인 사생활 보호, 국제적인 기준설정을 포함한 이용자 보호대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실시에 필요한 컴퓨터 정비 등을 지원하며, 전자상거래상의 적합마크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광인재육성을 위하여 대학 내 관광학부 신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숙박, 교통시설 등에서 외국여행자들에게 간단한 안내가 가능토록 기업의 어학연수 등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4. 시사점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환경 및 협력여건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일 3국 모두 외래관광객 유치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국가간 외래관광객 유치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020년 세계 1위의 관광목적지를 목표로 대규모 관광개발 등 진흥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도 New Welcome Plan 21 등의 계획을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국민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지역특화관광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외래관광객 유치 역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한·중·일 3국의 관광객 교류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상호간에 관광객 편의확대를 위한 노력과 연계상품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해외여행 자유지역 확대, 일본의 버블경제 탈피에 따른 경제성장 안정화, 한국의 주 5일 근무제 확대에 따른 해외여행

증가 등은 한·중·일 3국의 관광객 교류규모를 증가시킬 것이며, 국가간에 상호 중요한 외래관광객 유치로 자리를 확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일 3국간의 국제관광협력이 다양한 수준에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욱 확산되고 있는 한류 현상의 영향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과의 문화예술 교류가 확산되고 있으며, 한·일간에는 2005년 국교 4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방문의 해’를 계획·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북경~동경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들과 NTO, 각국의 여행사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되고 있는 등 한·중·일간의 관광협력이 국가, NTO, 지자체, 민간업계 등 다양한 주체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넷째, 한·중·일 간에는 정부간 관광정책 협력채널이 가동되어 국가간 관광교류확대와 관광장애요인 제거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간에는 각각 ‘한·일 관광진흥협의회’와 ‘한·중 관광진흥협의회’가 각국의 정부대표, 업계대표, NTO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국가간 관광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출입국 문제와 수학여행단 교류 등 일부 현안사항에 대한 협력에 머물고 있으며,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에 요구되는 한·중·일 3국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채널은 부재한 실정이다.

다섯째, 한·중·일 간의 법·제도적 관광장애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불법체류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출입국 절차를 단계적으로 간소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한국인 관광객에 대한 비자면제 등을 검토하는 등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활성화에 장애요인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출입국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관광사업이나 관광 개발에 관련된 각국의 다양한 법·제도 등에 대한 장애요인 검토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V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력과 장애요인

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의미와 기대효과

가.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의미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정세는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하였음, 그러나 동북아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적 관계는 한국전쟁과 분단, 남북의 긴장된 대치관계, 이데올로기 이념투쟁, 한·일간의 정서적 충돌 등의 문제들로 인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동북아 3국의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입각한 문화 교류를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는 형성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동북아는 새로운 동북아 정체성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실험을 계속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여기서 관광교류협력은 중요한 실험장이면서 무한한 가능성의 원천을 제공할 수 있다.

동북아는 유라시아 실�크로드의 기점이자 해양세력인 미국과 일본으로 가는 관문이며, 동북아 시대는 동북아 경제중심을 넘어,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구성해 나간다는 역사적이고 문명사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관광교류는 가장 기본적으로 동북아 국가간의 우호적인 관광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세계화라는 거대하고 개방적인 차원에서 동북아의 확고한 사회, 문화 정체성을 근거로 하여 세계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거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구성국가간의 시민사회 연대와 민간부문의 관광교류를 활성화 하고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주체들을 분명히 규정해야 할 것임. 국가적인 수준에서 하향 전달되고 통제되는 전략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결성되는 공공, 민간, 시민연대 차원의 교류의 구체적인 필요성과 인식정도를 심화시키는데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관광교류협력의 주체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교류하는 내용의 문제다.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내용에서 우선적으로 강조되고 고려되는 것은 역사적 공유성과 문화적 공감대 등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현대사회의 복합

적인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관광교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없다. 즉 과거의 역사적 공유성과 문화적 공감대 및 현대사적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관광교류협력의 내용 개발이 필수적이다.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주체와 내용의 성격이 정리되었을 때, 비로소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이 동북아시아에서 가지는 실체적 의미는 분명히 규정되어질 수 있다. 세계는 다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있기에 더 이상 서구사회와 비서구 사회로 나누어서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서양과 대조되는 동양이 아닌 다양한 중심체의 하나로서 동북아시아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해나가야 한다. 동북아 3국은 서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현대사적 의미와 관광의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상호발전을 모색하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기대효과

첫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국가외교의 보완 수단으로서 세계 평화와 한·중·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북한에 영향을 주어 한반도 평화정착과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동참을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한·중·일의 세계화 각 지자체의 국제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과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며, 지역의 관광기업들도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셋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한·중·일의 공공행정능력과 민간기업의 경영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일 간 관광교류협력의 확대는 과거 중앙정부에 집중된 국제활동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중앙정부 또한 국가간 교류협력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관광관련 국제기구 등 역외의 국제활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한·중·일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관광산업의 발전과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은 관광이미지 및 연계관광상품 개발과 공동 홍보마케팅을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관광매력을 높이고, 한·중·일 3국으로의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함으로써 관광외화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2.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잠재력

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본 잠재력

동북아 지역은 북미, 유럽과 더불어 세계 경제 3대 중심축의 하나이며, 동북아 역내 교역량, 자본이동, 인적교류 등을 보면 경제적 상호의존도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북아 3국은 과거 발전정도의 현격한 차이로 수직적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교류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역과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동북아 3국은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의 기본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동북아 3국의 교류협력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자주 언급되고 있는 부분은 한, 중, 일 3국의 역사적 공통성이란 측면이며, 이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유교문화의 공통성 또는 유사성과, 한자문화의 공유를 들 수 있다.

유교문화는 동북아 국가 국민들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사고체계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규범체계를 규정하기도 하다, 즉 동북아 국가들 간의 여러 교류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동질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지는 동북아 3국이 하나의 문자적 의사소통수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최소한의 언어장벽이라는 문제점을 해소시켜주며, 여타의 활자화된 매체의 원활한 유통촉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사회, 정치, 이데올로기적 경험과 대응능력을 들 수 있다. 한국은 어느 국가보다도 빠른 속도로 경제발전을 이루어왔으며, 동서 대립의 극단적 상황을 사회적, 정치적 변화상황과 동시에 체험했으며, 급격한 서구화 과정에 그대로 노출되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해왔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국가라 볼 수 있다.

극단적으로 역동적인 상황에 끊임없이 대처해 나가면서 한국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남북간 안보문제, 그리고 국가간 관계 정상화 문제로 수없이 많은 정책을 실행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경험을 해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니게 된 일종의 갈등 해결 능력은 동북아 문화교류의 활성화 전략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데 긍정적인 인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요구되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 전통과 현대의 조화, 안보 담론의 실천적 해결의 임무 수행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단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을 잇는 교량 역할을 한다는 차원을 넘어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교량 또는 매개자 역할을 주도적이며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요인들도 근본적인 장애요인이 있는 한 실질적인 관광교류협력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동북아 3국의 관광교류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요소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나.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 잠재력

동북아 교류협력의 잠재력은 일정부분 관광부문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그러나 관광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또 다른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모두 관광진흥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정책 의지가 높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국가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으나 교류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오히려 공생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으로 지역블럭화를 통한 경제공동체 형성이 해당 지역 국가의 국익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현실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부문의 문화관광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간 관광교류협력은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둘째, 역내 국가간 상호 관광교류가 활발한 동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이다. 한·중·일 3국은 현재 상호간에 주요한 외래관광객 유치시장이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과 일본의 장기경기침체 회복 그리고 한국의 꾸준한 경제성장은 역내 관광시장을 확대시킬 뿐만 아니라 한·중·일 간의 관광객 교류를 더욱 증대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적 교류의 확대는 관광여건과 환경개선, 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차원에서 각국의 협력적 정책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 공통성을 지닌 인접국가로서 세계시장에 대한 아시아 대표 지역의 이미지 확보 및 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중·일은 지금까지 역외 관광시장에 대해 역사·문화적 차원에서 매우 유사한 목적지로 인지되어 있으며, 유사한 개별 목적지로서 외래관광객들의 선택의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한·중·일은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마다 독특한 특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경험과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통합적 관광이미지 개발과 홍보·마케팅 그리고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전제되어야 한다.

3.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

가.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본적 장애요인

동북아 교류협력의 기본적 장애요인으로는 3국의 정치체제의 차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제도적 차이, 한·일간 독도문제와 중·일간 조어도 문제 등 영토분쟁, 한·중·일간의 역사논쟁 문제, 3국의 폐쇄적인 근대민족주의 문제 그리고 일·중간 지역패권 경쟁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동북아 3국의 정치체제의 차이가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체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중국은 등소평 이후 개방, 개혁의 폭을 넓혀 가고 있지만 큰 틀에서는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각종 교류와 관련된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 교류의 내용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와해시킬 염려가 있는 체제비판적인 내용들은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등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둘째, 체제의 차이로부터 기인한 제도적 차이 또한 동북아 3국의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관광교류와 관련된 문화 교류에 있어서는 사전, 사후 등의 심사가 각기 다르며 중국의 경우 심의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셋째, 동북아 3국간에는 한·일간 독도문제, 중·일간 조어도 문제 등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영토분쟁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한반도 통일 이후 간도문제도 한·중간 영토분쟁으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음. 이와 같은 영토문제는 3국간 정치적 신뢰구축과 역내협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음.

넷째, 영토분쟁과 함께 역사논쟁도 한중일 3국간 신뢰구축과 역내협력을 저해하는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교류협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미 한국과 일본간에는 오래 전부터 치열한 역사논쟁이 전개되어 왔음. 과거 일본은 한반도 남부에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일본의 한국지배를 정당화하려는 구식민사관적

논리를 펼친바 있으며, 이는 양국 학계의 뜨거운 논쟁을 넘어서 양국 정부와 시민사회간 한치도 양보 없는 대립양상으로까지 발전한바 있음. 최근에도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일본 중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 위안부 문제 등으로 양국정부와 시민단체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을 빚어왔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과 북한도 한국과 비슷한 입장에서 일본과 유사한 역사논쟁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이는 일차적으로 20세기 초반 군국주의 일본의 한반도 강점과 중국대륙 침략이 일본과 한국, 중국간 역사논쟁과 마찰의 근원을 제공했기 때문임. 더욱이 최근에는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하여 한국의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한국과 중국간에도 전례 없는 역사논쟁이 불붙고 있음. 중국은 동북공정이 동북 3성 지역(만주)에 향후 예상되는 주변국(특히 한반도 통일이후 한국의) 도전에 위협에 대처하려는데 목적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음. 이미 발해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취급해온 중국이 고구려사마저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한국민의 분노와 반증감정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최근 동북공정과 관련된 파문에서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은 동북아 지역에서 역사문제에 관한 한 이제까지 한국+중국대 일본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임. 이는 향후 한중관계가 한일관계처럼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임.

다섯째, 한중일간 영토분쟁과 역사논쟁이 엄청난 인화력을 갖고 있는 것도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3국 모두 폐쇄적이고 국수주의적인 근대 민족주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이미 근대의 해체기에 접어든 구미와는 대조적으로 동북아 지역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서로 충돌하고 있는 근대의 절정기에 있음. 한중일 3국 민족주의의 특징은 국가 또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일부 또는 민간그룹이 배타적 민족주의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점임. 이는 동북아국가들간 민족주의 갈등이 시민사회의 참여가 배제된 정부간 협상이나 대화로만 해결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것임. 뿐만 아니라 한중

일 3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은 각국의 민족주의가 더욱 강력한 동원의 이데올로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강화시켜주고 있음. 또한 한중일 3국간 민족주의 충돌은 서로가 상대방을 타자화, 배제, 배척하는 적대적 관계인 동시에, 서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내연의 공범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이러한 적대적 공범관계 속에서 3국의 민족주의는 표면적으로는 적대적 관계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상호 국내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나가면서 각기 생존을 위한 민족주의 충돌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음. 향후 한중일 3국은 현실적으로는 정치, 경제적 필요성 증대에 따른 역내협력을 계속 모색할 것으로 보이지만, 지속적인 민족주의의 파고 속에서 영토분쟁 및 역사논쟁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 마찰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임. 따라서 향후 3국간 협력체제가 본 궤도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내국가들간 역사인식의 공유를 위한 관리체제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역적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도 핵심적 사안이라 할 것임.

여섯째, 일중간 지역패권 경쟁이 걸림돌이 될 수 있음.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지역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적 상호의존 증대와 같은 경제적조건도 중요하지만, 역내국가들에게 통합을 위해 필요한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주도국의 리더십과 같은 정치적 조건도 충족되어야만 함. 문제는 중국과 일본 모두 이러한 역내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더욱이 최근 지역패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양국간 전략적 경쟁관계는 역내 협력의 진전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일중간 지역패권경쟁이 한국, ASEAN 등 역내국가들에게 일정한 자율성의 공간을 제공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략적 경쟁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일중관계가 역내협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중국과 일본은 각기 단독으로 역내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없으며, 유럽통합 과정에서 불란서, 독일처럼 양국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통합의 지도력을 발휘할 가능성 또한 현재로서는 희박하기 때문임.

나.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 장애요인

한·중·일 3국 또는 각 국의 지역간 관광교류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는 각국의 제반 규제사항들, 각국 관광환경과 여건에 따른 관광정책 방향 차이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장애요인에 의해 동북아 지역 관광교류협력에서는 개인의 관광 기회 감소와, 관광 관련 사업의 활동성 저하,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반감 등의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중·일 3국의 관광과 정부 정책, 그리고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로는 비자 정책, 관광관련 세제, 외국인에 대한 고용제한, 그리고 외국 투자 및 소유에 대한 제한 등이 있을 수 있다.

안전 및 안정과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관광객 입국시 엄격한 입국심사 및 이에 따른 인권침해, 생물체와 관련된 통제, 방문객들에 반하는 범죄행위 등이 포함된다.

행정과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관광 관련 사업 및 개발에 대한 승인의 지연, 비자 발급의 지연, 관광정책에 대한 협의적 해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 및 문화와 관련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으로는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관련된 기준이나 모니터링 시스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북아 교류협력의 관광부문 장애요인으로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경제적 수준 격차와 한자문화권으로 문자를 통한 의사소통은 유리하나 관광활동과 관련된 실질적 언어소통의 한계 그리고 한반도 남북문제에서 발생하는 북핵문제 등 국제정치적 환경을 들 수 있다.

4. 시사점과 대응전략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잠재력과 장애요인을 분석한 결과 향후 한국, 중국, 일본의 국가간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과 이해가 필요하다.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은 3국의 입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일은 국가의 체제와 경제수준, 문화인식 등에서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관광교류협력의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장애요인 제거 추진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광교류협력은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류협력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보다 교류협력분야를 구분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실질적 상호호혜의 성과를 거두는 것이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을 촉진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셋째,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장애요인은 단계적으로 장애정도를 감소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차원에서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광교류협력을 한·중·일간에 동시에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한·중, 한·일, 또는 중·일 간에 단계적인 합의를 통해 장기적으로 동북아 전체의 교류협력을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넷째, 한국의 입장에서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창출하고 관광교류협력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상호 패권경쟁관계에 있는 중국과 일본은 한국처럼 중간자 입장에서 있지 않아 각종 현안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동북아 3국 관광교류협력에 있어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V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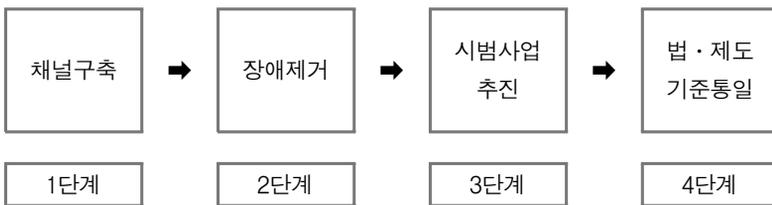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 분야 및 사업

1. 교류협력 단계 설정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볼 때 국제관광교류협력의 형태는 교류협력 채널 또는 창구 구축,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기존 교류협력 활성화, 공공 및 민간교류협력 시범사업 추진, 법·제도 기준의 표준화(통일)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제도 기준의 통일은 유럽연합이나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형태를 구분하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교류협력의 형태는 대체적으로 단계별 발전과정을 통해 확대되고 구체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해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접근과정을 4단계로 설정하였다. 물론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현실여건과 상황변화에 따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될 수도 있으며, 단계별 접근의 우선순위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한다.

<그림 V-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형태와 단계별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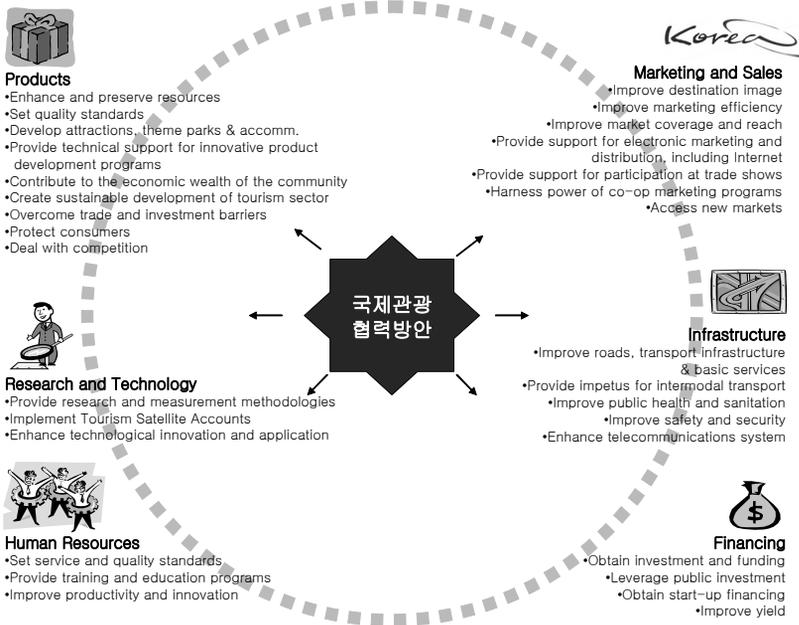


자료: 필자 작성.

2.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 분야 검토

국제관광교류협력 분야의 일반적 구분은 상품, 마케팅 및 판매, 연구 및 기술, 인력자원, 기반시설, 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V-2> 국제관광 협력분야별 협력방안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반적 협력방안과 앞서 조사·분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교류협력 분야를 관광교류협력 채널 및 시스템 구축, 관광정보기술 공유 및 공동연구, 관광객 및 관광인력 교류, 연계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홍보·판매, 관광자원 공동개발 및 투자촉진 등으로 설정하였다.

3.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잠재사업 검토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교류·협력의 기본방향은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관광교류·협력과 차별적 방향성을 지녀야 한다. 경제적 중심전략이 절대적 또는 상대적 경쟁이 특성이라면 문화적 공동체 형성은 상호이해에 바탕을 둔 협력을 특성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본방향의 설정은 문화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광교류·협력의 기본방향으로는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내 문화교류 및 이해증진,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대외적 공동체 이미지 형성, 관광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방문매력 제고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가. 동북아 인적 관광교류 촉진환경 조성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기능하려면 물자, 자본, 정보, 지식이 모여들어야 하고 끊임없는 인적교류가 수반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적교류는 어떤 형태를 띠든지 결국은 관광객으로서의 방문을 의미한다. 그래서 세계의 주요 경제중심지들은 관광지로서도 명성을 지니고 있고, 역으로 관광지라는 명성에 힘입어 경제중심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

한편 관광은 비즈니스 방문객의 체류를 연장하고 재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관광객으로 변화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재창출하는데 기여한다. 이런 점에서 인적관광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은 동북아 중심 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국가간 인적관광교류 촉진환경의 조성은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적 사고를 고취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기본적인 인적교류의 대상은 일반적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청소년, 관광사업자, 관광서비스 종사자, 관광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추진사업으로는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출입국 절차 간소

화, 여행규제와 외화통화 규제 등의 관광활동 장애요인 제거 등을 비롯하여 동북아 인트라비자 도입, 동북아 관광패스 개발, 관광서비스 인력 고용 정책 개선, 관광전문인력 교환교육, 청소년 문화관광체험 교환프로그램 개발, 보건 및 안전의 권리 확대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동북아 역내 무사증 제도(intra visa) 도입

동북아의 관광과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입국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수시교류가 가능하도록 지역내 노비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역내 무사증 제도는 단기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 수학여행단, 관광전문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상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광사업자, 관광서비스 종사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역내 무사증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북아 관광협력센터와 같은 공동기구를 설립하여 무사증 적용대상 인적 DB를 구축·관리하는 동시에 해당 국가간에 정보를 공유·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 가칭 『동북아관광패스(North East Asia Travel Pass)』 개발

동북아 지역은 세계의 중심 경제권중 하나로 부상하면서 역내의 관광교류 증가뿐만 아니라 세계관광시장에서도 관광목적지로서의 매력을 더하고 있다. 그러나 한·중·일을 모두 방문하기에는 시간과 거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비용부담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유럽국가들을 연결하는 대부분의 철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레일패스의 도입을 통해 실질적 여행경비 부담을 줄여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관광객의 교류와 방문을 촉진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도 국가간, 지역간 연계에 이용되는 각종 교통수단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된 관광교통패스를 도입할 경우 지역간 교류와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가치 「동북아 관광협력공사」 설립

동북아의 관광교류는 국가간 협력사업이므로 법·제도적으로 사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연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단순한 수익성 보다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 우호증진, 국민복지 등 공익성이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북아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협력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협력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며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 또는 관련공공기관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공익적 추진조직을 설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법·제도적 문제 해결과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 관광협력공사는 앞서 언급한 동북아 관광패스 도입추진, 관광서비스 인력 고용정책 개선, 관광전문인력 교환교육 등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역할하며, 그리고 국제기구사업의 동북아 지역내 유치, 역내외 투자유치 촉진 등을 주요기능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문화적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교류의 장 확대

동북아 지역내의 문화적 이해증진,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교류협력 활성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동북아 지역의 문화매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기준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 내 각종 관광교역전이나 전시박람회는 경

제적 목표 하에 민간부문의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간의 문화관광교류의 장으로서 동북아 문화관광교류전 및 문화관광축제의 정기적 교환 개최, 동북아 지역의 문화 유산을 한 자리에 모으고 관광홍보 활동과 연계하여 세계시장을 유치할 수 있는 아시아문화관광대전 개최, 동북아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관광기업인 연차총회 개최, 동북아 문화관광의 해 추진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한·중·일 문화관광교류전 순환 개최

한국, 중국, 일본은 공통적으로 유교와 불교의 문화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전파, 수용, 토착화 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파되어 수용·토착화된 문화적 근원은 동북아의 상호이해와 지역협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일의 다양한 문화와 관광상품을 한 자리에 모아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적 공감대 형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중·일 문화관광교류전은 3국이 순환하면서 초청형식으로 개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마도 과거역사, 종교, 생활문화 등 차별적 변화를 주며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개최시 행사관람과 함께 개최국의 역사문화 현장답사를 추가한 관광상품의 연계개발도 가능하다고 본다.

(2) 동북아 관광기업인 정례 총회 개최

동북아 경제권 부상 이후 동북아 지역의 한·중·일간 역내 관광교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동북아 지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각국의 정

부나 관광기업인들이 해온 각자의 계획과 노력만으로는 한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관광기업인들 간에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상호정보교류와 공동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더욱 부각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Win-Win 전략의 모색이 필요하다.

동북아 관광기업인 총회는 각 국의 호텔, 항공사, 여행사, 컨벤션센터 등을 대표하는 기업인들로 구성하고, 전략적 제휴나 협력방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관광전문가 포럼을 부대행사로 연계하여 개최할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가칭 『동북아 방문의 해』 추진

동북아 지역에서의 방문의 해(Visit Year) 사업은 한국과 중국이 각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시장 특히, 구미주 시장에서의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이미지는 별다른 차별이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국 동북아 지역의 외래관광객 방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각 국의 문화관광매력이 독특하고 차별적이라는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서 공동방문의 해 사업추진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북아 방문의 해 사업추진은 구미주 시장으로부터 방문하는 관광객의 동북아 지역 방문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관광경비문제, 이동 및 출입국 편의문제 등을 국가간의 협력을 통해 최소화함으로써 역내 외래관광객의 방문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공동 방문의 해 사업추진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광목적지로서의 이미지와 매력 증진, 관광객 편의제고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연계 관광서비스 시스템 구축, 관광자원의 연계 및 보완적 활용을 통한 관광매력 증진 등 다양한 통합적 마케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관광자원 가치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공동협력

세계관광기구(WTO)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미래세대의 관광기회를 보호, 증진하면서 현세대의 관광객 및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하고, 문화적 온전성, 생태적 과정, 생물다양성 그리고 생명부양체계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심미적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은 이제 바람직한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의 관광은 대부분 현재의 관광객 욕구를 충족하고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앞으로는 현재뿐 아니라 미래관광객의 관광기회와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여 문화자원과 자연자원의 보존과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관광의 공공적 책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경쟁력이 미약한 동남아시아의 국가 간에는 오래 전부터 외화획득산업으로서 관광객 유치경쟁이 매우 치열하였다. 여기에 관광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평가되면서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도 관광산업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가적, 지역적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발굴과 개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그 결과는 아시아의 역사, 문화, 자연 등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관광자원의 가치보존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국가간 경쟁적인 관광개발정책을 합의와 협력을 통한 공동의 보호·보존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정책방안의 공동연구와 동북아관광연구센터 설립, 한·중·일 문화생태자원의 공동보존 및 활용, 동북아 녹색관광네트워크 구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관광자원의 가치보존과 지속가능한 관광개발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세계관광기구(WTO), 유엔환경계획(UNEP), 유네스코, 유럽연합이 1995년 선언한 ‘지속가능한 관광헌장(Charter for Sustainable Tourism)’에서 언급된 바 있으며, 유엔지속가능개발위원회(UNCSD)는 1999년 지속가능

한 관광을 특별과제로 논의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기구 및 각 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다.

(1) 가칭 『아시아 관광연구센터』 설립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관광에 대한 국가적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자원 및 상품개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추세는 자칫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의 지나친 개발과 상업화로 이어져 세계적 추세로 대두되고 있는 보존과 보호의 기본적 틀을 깨뜨릴 위험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에 상호 준수해야 할 기준과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이 가능한 방법론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이 요구된다.

이런 필요성에 볼 때 동북아 지역과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관광자원의 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바람직한 가이드라인 연구와 구체적인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아시아 관광연구센터의 설립은 동북아 지역의 관광발전 및 산업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의 싱크 탱크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시아관광연구센터는 앞서 언급한 동북아 관광협력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한 전문적 연구 등도 수행할 수 있으며, 동북아 관광협력공사 산하에 전문연구시설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2) 녹색관광모델개발 및 네트워크 (Green Tourist Network) 구축

각 국이 지니고 있는 자연기후적, 동식물학적 자연생태자원의 특성을 반영한 녹색관광모델지역을 공동으로 투자 개발하고 이를 관광프로그램으로 네트워크화 하여 청소년 수학여행 대상지로서 상호방문을 촉진함으로써 자연 및 생태환경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한다.

생태자원의 관광상품화와 지속 가능한 공동 활용을 위해 동북아 지역내

보존가치가 큰 잠재자원을 대상으로 생태관광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연계하는 녹색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관광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남북한 비무장지대의 보존 및 개발에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를 유도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고, UNDP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개발 지원과 국내외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동북아 문화의 연계관광 상품화

동북아 지역의 문화체험은 전통문화에서 예술문화와 생활문화 그리고 역사문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현재 관광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문화관광상품의 범위는 매우 제약적이다. 다양한 문화소재의 발굴 및 관광상품화가 미흡하고, 단순상품으로는 상업적 수익성 확보가 어렵고, 더욱이 문화관광 수요계층 또한 두텁지 못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다양한 문화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기본적으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다각적 시각에서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고 체험하여 만족할 수 있는 동북아 문화관광 연계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오리엔트의 매력을 부각한 한·중·일 연계 생활문화체험 관광상품 개발, 유교·불교문화 전파경로를 연계한 순례관광코스상품 개발, 한·중, 한·일 역사유적지, 해양문화자원을 연계한 크루즈 상품개발, 동북아 관광 Best 10 선정, 민관협력 동북아 관광상품개발 전담조직 설립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1) 가칭 『동북아 관광상품 기획위원회』 설치

동북아 관광협력공사 또는 동북아 관광기업인 총회 사무국 산하에 호텔, 여행사, 항공사, 리조트사업자 등 관광상품 구성에 관련된 실무자 및 전문가들로 관광상품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각 국을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공동기획·개발하도록 한다.

관광상품 기획위원회는 동북아 지역의 관광매력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관광목적지 또는 관광대상을 선정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의 관광매력 제고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관광상품 기획위원회는 평가를 통해 동북아 지역 내 우수한 관광자원 및 관광상품을 선정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당 자원 및 상품에 대한 대외적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이용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동북아 연계 체험관광상품 개발

동북아 각 국가별, 지역별로 특색을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생활문화, 전통문화, 유교·불교문화, 역사문화유적지 등을 소재로 한·중·일을 연계하는 체험관광상품을 다양한 형태로 개발한다.

특히 전통생활문화는 궁중음식, 다도와 같은 식문화, 전통가옥과 같은 주거문화, 세시풍속과 같은 생활문화와 유교·불교문화는 주요 사찰, 향교, 사적지 등을 소재로 문화적 의미와 차이를 비교체험 할 수 있는 체험관광상품으로 공동으로 개발한다. 체험관광상품의 개발형태는 전통생활문화, 유교·불교문화, 역사문화 등 대주제별로 구체적인 테마를 설정하여 특수목적관광(Special Interest Tour)상품으로 개발가능하며, 특히 크루즈를 숙박 및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코스의 개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연계 체험관광상품 개발은 앞서 언급한 동북아 관광상품 기획위원회를 통한 사업자의 의견수렴과 관광연구센터의 정책적 전문연구를 통해 모델코스 또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 동북아 관광홍보 및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공동 관광홍보 및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은 관광교류 협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동북아 지역을 하나의 통합된 이미지로 강화함으로써 국제적 지명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브랜드 개발도 가능하게 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동북아 공동홍보 안내책자 발간, 한·중·일 공동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광자원DB 구축 및 연계, 관광전문인력 취업정보 공유 등을 검토할 수 있다.

(1) 동북아 관광안내 홍보물 발간 및 배포

동북아 지역의 관광대상지와 관련 관광정보를 담은 각종 홍보물을 주요 언어별로 공동으로 발간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한 하나의 목적지로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세계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특히 한·중·일 연계관광의 매력을 최대한 부각하고 연계관광에 따른 가격할인, 무료서비스 제공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쿠폰 등으로 수록하여 역내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도록 한다. 공동 홍보물은 각국이 참여하는 각종 국제회의 또는 행사시 적극적으로 배포·활용하여 홍보물 개발을 통한 관광진흥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2) 한·중·일 관광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동북아 관광인터넷 홈페이지를 개발하여 다양한 역내 관광자원 및 신상품을 소개하고 방문의 해 등 지역적 프로모션 행사 등에 대한 홍보를 연중 실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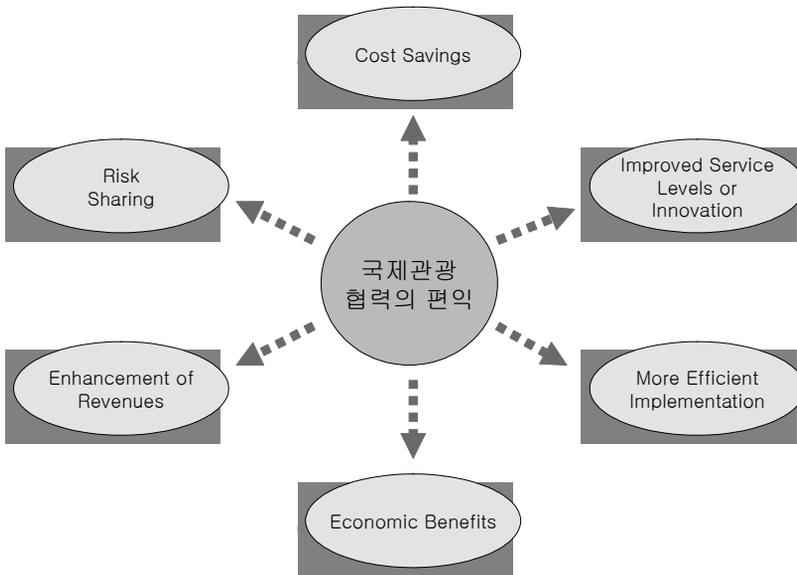
특히 홈페이지 내에는 참여국가들의 다양한 관광통계 Data Base를 연계하여 정책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관광전문인력 취업정보 등을 공유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종사자를 인적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4.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기대효과

가.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일반적 편익

국제관광교류협력의 일반적 편익은 비용절감, 서비스 수준의 제고 또는 혁신, 효과적인 사업수행, 경제적 편익, 수익성 향상, 위험의 분산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V-3>국제관광협력의 일반적 편익



박기홍은 지방정부의 국제관광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기대효과를 인류 공영, 국제화, 행정향상, 낭비종속, 상호의존, 지역발전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V-1>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기대 효과

기대효과	세 부 내 용
인류공영	국가외교보원수단, 지구환경보존/공동이용, 지역민 복지향상
국제화	외국과 문화교류, 지방기업 국제활동증가
행정향상	지방정부 분절현상극복, 국제협력기능 지방분산, 국제상호의존성 강화
낭비종속	지역민 해외여행낭비초래, 지방정부의 자원낭비, 지역경제의 국제종속화, 원자지등 해외의존증가
상호의존	세계평화, 분쟁완화, 지역민 국제인식향상, 지방정부간 경제교류촉진, 지방정부 협력채널다양화, 선후진국간 상호의존강화, 세계관광정보수집
지역발전	외래관광객 지역유치증대, 지역이미지 국제화,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특색있는 지역개발, 관광선진기술 도입촉진, 공무원행정능력국제화

자료: 박기홍,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나.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의 효과

일반적인 국제관광교류협력의 기대효과와 지방정부의 국제관광교류협력의 기대효과 그리고 본 연구에서 조사·분석한 한·중·일 국가의 관광환경 및 교류협력 여건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동북아 지역 한국, 중국, 일본의 관광교류협력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1) 정치·경제적 효과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치·경제적 효과로는 비용의 절감, 사업실행의 효율성 제고, 경제적 편익, 수익증진, 위험분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정치·경제적으로 미칠 긍정적 효과로는 직접적 효과로서 동북아 지역의 관광이미지 제고, 대외 관광홍보마케팅 효율성 향상, 외래관광객 유치 증진 및 만족도 제고, 역내 및 역외 방문관광객의 편익증진, 관광객의 관광경비 절감, 역내

관광안전체계 강화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효과로는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성 확보, 동북아 FTA 공감대 형성, 일반 경제 분야의 협력기회 및 채널 확대 등도 기대할 수 있다.

(2) 사회·문화적 효과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효과로는 세계화 및 국제화 촉진, 서비스 수준 향상, 타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자국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사회·문화적으로 미칠 긍정적 효과로는 직접적 효과로서 상호이해 및 우호증진, 문화적 교류기회 및 채널확대 등을 들 수 있으며, 간접적 효과로는 3국간의 역사문제에 대한 화해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3) 자연·환경적 효과

국제관광교류협력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환경효과로는 친환경적 자원개발 및 관리강화, 상대적 보존자원의 상호활용, 지속가능한 환경보전 인식확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동북아 관광교류협력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환경적으로 미칠 긍정적 효과로는 직접적 효과로서 친환경적 관광개발 방식 및 관광자원 관리에 대한 기준설정,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VII

정책제언 및 결론

1. 정책제언

동북아 지역의 관광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부와 민간차원에서의 기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정부차원에는 교류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지원체계 정비가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법·제도적 정비는 각 국가별로 개별적인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동북아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제도의 신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검토는 동일기준의 적용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가 핵심이 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서는 현실여건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자체 해결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으로 검토·제시된 다양한 사업이나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추진조직 및 인력구성, 재원조달 및 예산확보, 단계별 투자계획, 지속적인 관리 및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사업이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지 못하면 그 실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현황을 중심으로 교류협력의 잠재력과 장애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동북아 관광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관광교류협력사업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제시한 연구결과는 현황분석에 기초한 기본적인 방향성 제시와 잠재력 있는 사업을 제시한 수준으로 한·중·일 관광교류협력의 실효성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2. 결론

최근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지역이 세계 3대 교역권의 하나로 부상하면서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수많은 경제학자와 미래학자들이 21세기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1999년을 기준으로 세계 총생산의 20%, 2000년을 기준으로 세계 물동량의 2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중국의 WTO 가입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의 반사이익 등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경제적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Booz · Allen & Hamilton 보고서(1997)나 국제경제전문가들은 풍부한 자원과 내수시장을 가지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는 중국과 세계적 경제·기술대국인 일본 사이에서 한국은 부존자원,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자칫 토지, 노동, 자본 등 요소가격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Nut Cracker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새로이 출범한 참여정부가 국정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의 성패는 향후 한국경제의 생존과 미래 번영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국가 간 경쟁은 물질 자본 중심의 한계 효율적 투자에 기초하는 물류, 금융, R&D의 중심기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 지역 내 교류협력의 문화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비용적 사회자본 투자에 기초하는 평화와 번영의 문화적 공감대 확보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관광은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교류체험을 통한 상호이해 증진과 미래에 대한 가치공유 등 문화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분야다. 즉 관광분야의 국제교류·협력은 동북아 경제중심지 확보뿐 아

나라 동북아 지역 내 문화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윈-윈(Win-Win)전략으로서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 일본간에 문화개방과 교류가 확대되고 중화권을 중심으로 한류가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교류협력은 이러한 문화교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경석·김원배·이상준. 『한·중·조 협력실태와 지역개발의 전망』. 서울: 국토연구원, 2000.
- 김원배. 『동북아 협동적 지역개발의 사례분석과 이론 모색 - 월경적 지방간 협력을 중심으로』. 서울: 국토연구원, 2002.
- 김철용·이연택. 『국제관광론』. 서울: 21세기 한국연구재단, 1996.
- 김철원·김대관. 『한·중·일 + 아세안 관광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2000.
- 김철원. 『중국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한 관광상품개발방안』.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1999.
- 류정아·정정숙·정상철. 『동북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문화정책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문화관광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4.
- 문화관광부. 『관광진흥 5개년 계획』. 2004.
- 박기홍. 『APEC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 방안』. 서울: 대외경제연구원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1998.
- 박상수. 『국제관광원론』. 서울: 형설출판사, 1998.
- 부산광역시. 『한·중 도시간 관광교류 증진을 위한 국제세미나』. 자료집, 2001.
- 박종윤. 『관광정책론-공공정책과 경영정책-』. 서울: 박영사, 1997.
- 유지윤. 『세계 주요국가 관광정책 동향 및 사례분석』.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일본경제기획청. 『글로벌리제이션 워킹그룹 보고서』, 1998
- 전효재. 『국제관광 수요예측』.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정상철·유승호·김민규·박만봉. 『한국 문화산업의 동북아 지역 진출할

- 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2.
- 정인교 외.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서울: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03.
- 한국관광공사. 『관광시장 동향분석 2003』. 서울: 한국관광공사, 제1호, 2003.
- 한국관광공사. 『방한외래객추이분석』. 서울: 한국관광공사, 1999, 2002.
-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서울: 한국관광공사, 1999, 2003.
- 한국관광공사. 『일본 관광시장 분석』.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1.
- 한국관광공사. 『중국 관광시장 분석』.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1.
- 한국관광공사. 『한류관광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3.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서울: 한국관광공사, 1995~2003.
- 한국관광연구원.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서울: 한국관광연구원, 2000.
- 한국국제협력단. 『1994년도 한국국제협력단 연보』. 서울: 한국국제협력단, 199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동북아 문화·관광 교류와 문화산업 협력』. 개원 1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2003.
- 한국산업은행.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국가별 편람』. 서울: 한국산업은행, 2003.
- 허갑중. 『서울·동경·북경 연결 패키지 상품 개발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3.
- 國土交通省. 『觀光白書』. 2003.
- CNTA(中國國家旅遊局). 『2003년 중국 인바운드 관광 종합』(자체 번역). CNTA, 2004.
- D. Snidal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Relative Gains Maximizer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4), 1991.
- JTB . 『JTB REPORT 2004 일본인 해외여행의 모든 것』(자체 번역). JTB, 2004.
- P. M. Blau. *Exchange and Power in Social Life*. New York: Wiley

- and Sons, 1974.
- R. Keohane. *International Institution and State Power: Essay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WTO. *Statistics Service Page*. 2004.
- WTO. *Tourism 2020 Vision*. 2002.
- WTO. *Compendium of Tourism Statistics*. 2003.
- 박기홍. 「지방정부의 국제관광협력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7.
- 이만득. “한국관광교역전의 선진화 추진방안: 관광선진국 사례를 중심으로.” 『21세기를 대비한 한국관광 선진화를 위한 심포지움』. 한국 일반여행업협회 주제발표논문, 1996.
- 姜京蘭. “中國觀光產業의 現況과 未來”.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04.
- 朱永德. “中國人海外旅行의 動向과 未來”.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04.
- 崔慈玲. “日本人 訪韓觀光의 改善方案 및 向後發展戰略”.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04.
- 草野 敬一. “東北아시아 國際觀光經濟圈 形成을 위한 提言”. 『동북아 관광거점 육성전략에 관한 한·중·일 국제세미나』. 발표자료, 2004.
- 前田 勇 “일본·한국간의 국제관광교류의 추이와 전망.” 한양대학교 관광연구소, 『국제관광교류의 추이와 전망』. '96세계화와 국제관광발전 연구발표회 발표자료, 1996.
- Satoru Kanazawa. "Tourism Cooperation among Japan, China and Korea" in the Proceedings of China/Japan/Korea PATA Chapter Tourism Forum. 2004.
- Xue Yaping. "Tourism in Chin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ceedings of China/Japan/Korea PATA Chapter Tourism Forum. 2004.

Yoo Byung Hyuk. "Cooperative Measures for Joint Product Development and Promotion Activities to Advance into Long Distance Markets for Private Sectors of Korea , China and Japan" in the Proceedings of China/Japan/Korea PATA Chapter Tourism Forum. 2004.

中村 稔 . JNTO 이사장 인터뷰 『2004년 8월 추정치 방일외래객 수 · 출국 일본인 수』. 2004년 9월 29일.

國際觀光振興機構 (JNTO). (平成16年 4月 12日). 訪日外客數 · 出國日本人數 (2003年 確定値). JNTO.

國際觀光振興機構 (JNTO). 2003 年訪日外客數數 · 出國日本人數の動向. JNTO, 2004.

APEC TWG. Impediments To Tourism Growth In The APEC Region. 1996.

CNTA. China's 10th Five Year Tourism Development Plan and Targets for 2015, 2020, 2001.

부 록

1. Visit Japan Campaign : 일본

○ 추진배경

- 국제 관광객 유치활동의 강화를 통한 관광여행수지 적자의 해소
- 중점시장인 한국, 미국, 중국, 홍콩, 대만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
- 2002년 12월 24일 글로벌 관광전략의 책정(국토교통성), 글로벌 관광전략의 하나인 '외국인 여행자 방일 촉진 전략'의 하나로서 실시 됨
- 2003년 4월1일 비지트 재팬 캠페인 실시본부의 개설

○ 추진내용

- 기본방침
 - 중점시장별로 여행시장의 특성에 맞게 실시시기 내용에 관한 효과적인 시책을 채택하여 전개한다. 가능한 한 대상 시장의 정부, 여행 미디어 관계자의 협력을 구함
 - 일본국내에 대해서도 방일외국인 여행자의 증가시책에 관한 전국민적인 이해를 도모하여 사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얻을 수 있는 효과적인 시책을 전개함
 -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 혹은 민간기업/ 단체가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의 규모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함
 - 시책의 실시 후에는 반드시 시책에 대한 효과를 검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그 다음 시책의 선택과 전개에 반영함
- 주요 시책
 - 미디어 믹스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
 - 미디어 세일즈

- 중점시장의 현지에서의 이벤트 활동의 실시
 - 방일 여행투어상품의 조성 지원
 - 재팬트레블 스페셜리스트의 육성
 - 웹 사이트에서의 캠페인 정보의 발신
 - 일본 국내에서의 캠페인 이벤트의 실시
- 세부 추진 내용
- 태국 및 그 밖의 주변국, 오세아니아주 캐나다 및 구주의 준 유망 시장에 중점을 두고 여행사나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세미나의 개최, 보도관계자의 초청, 취재협력에 의한 일본 소개의 기사, TV프로에 대한 제작 지원을 지방공공단체, 항공사업자, 여행사 등의 관계자와 협력을 하여 실시함.
 - 지방공공단체 항공사업자 여행사 등의 관계자와 협력하여 세계각지에서 개최되어지는 주요 여행 전시회에 출전하여 각 시장의 일반 소비자, 여행업계관계자에게 최신의 여행정보를 제공하여 방일 여행의 판매를 촉진함.
 - 재외공관은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일본 소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일본에 대한 이해의 촉진과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본의 국제방송을 더 충실하게 함.
 - 외국인의 체재정비 상황을 진단하여, 국제관광지로서의 정비지침을 정리하고 지역관계자가 일체가 되어 외국인 체재 개선을 추진함.
 - 외국인 여행자가 주유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정비하도록 국제관광 테마지구의 정비를 진척하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소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국제교류거점시설을 정비함.
 - 박물관,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할인 등과 같은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는 웰컴카드 및 외국인 대상의 할인운임의 도입 보급, 외국인 여행자가 이용하기 저렴한 숙박시설의 소개를 통해 외국인

여행자의 국내여행 비용을 저렴화 시킴.

- [i] 안내소의 정비, 통역가이드의 보급, 지역한정의 통역안내업제도, 공항 역 관광지에서의 외국인도 알기 쉽도록 안내표시의 정비.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외국인이 쾌적하고 원활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체재의 정비를 도모함.
- 국제 컨벤션의 진흥을 위한 유치 촉진활동, 개최의 원활화를 핵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함.
- 2005년 일본국제박람회 개최를 위해 (재)2005년 일본국제 박람회 협회가 박람회장의 건설을 지원함.
- 방일 관광객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동아시아내의 복수의 도시에 있어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수 통화 대응 교통계 IC카드에 대한 연구와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그에 대한 개발과 보급을 촉진함.
- 관광관계 2국가간의 협의를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간에 개최를 하여 관광교류를 촉진하고 또한 일본 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휴협정의 틀에 있어서 관광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양국가간의 협력을 강화함.
- 출입국 관리의 적정·원활화를 도모함.

○ 추진주체 및 역할

- 실시 본부: 전략책정, 실행지휘

- 본부장: 국토교통성 대신
- 구성: 일본 투어리즘 산업단체 연합회 회장 혹은 업계대표, 지방공공단체 대표, 광고업, 마스크 대표, 경제계 대표, 관계성청
- 실시 체제는 국토교통성 대신을 본부장으로 하고 관민이 하나가 되어 구성되어진 실시 본부를 설치함
- 실시 본부 중에는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구체적이며 상세한 기획 입안 및 지휘를 담당함.

<부록 표 1> Visit Japan Campaign 추진주체 및 역할

구 분	집행위원회 (총 17명으로 구성)	Visit Japan 캠페인 실시 본부 (총 55 단체 기업의 대표자로 구성)
위원장	국토교통성 종합정책국장	국토교통대신
부위원장	(사) 일본투어리즘 산업단체 연합회 회장, 국토 교통부대신, 일본관광협회회장, 국제관광진흥회회장	(사)일본 투어리즘 산업단체 연합회 부회장, (사)일본관광협회 회장, 국제관광진흥회 회장
기타	여행업, 숙박업, 레스토랑, 그밖의 관광 - 항공운송업, 국제공항, 공항청사, 철도사업, 자동차운송업, 여객선사업 - 관련사업, 관계성청	여행업, 숙박업, 레스토랑, 그밖의 관광 - 항공운송업, 국제공항, 공항청사, 철도사업, 자동차운송업, 여객선사업 - 관련사업, 매스컴, 국제단체, 자치제 대표, 관계성청 - 읍저버(각국 대사) 로 구성

- 구체적인 사업: 국가, 지방, 민간의 공동사업

- 각국별 시장조사, 효과측정
- 미디어 믹스(광고 캠페인)
- 미디어 세일즈(저널리스트 초청)
- 재팬트레벨 스페셜리스트 육성
- 일본 매력 사이트의 창설 정보의 발신
- 시장별 캠페인 전략의 책정
- 외국에서의 이벤트 실시
- 방일 투어의 조성
- 일본국내에서의 이벤트 실시
- 외국인 방문을 대비한 인재 육성
- 해외추진 체제
- JNTO, 재외공관, 민간의 해외 사무소 등의 관민일체 체제

○ 2003년도 세부 사업 내용

- 목표

- 한국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시행(동남아시아, 중국의 SARS 질병영향)
- 한국시장
 - 한국국제관광전(KOTFA2003)출진, 상담회의 실시(6월)
 - 40-50대 주부층을 주요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특히 동북지역의 온천숙박, 식사를 테마로 하여 지금까지 없었던 개인여행자 대상의 관광상품(캠페인 투어 상품)을 조성. 이와 동시에 여행 에이전트를 초청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7~9월)
 - 방일 교육 여행의 모델 코스의 작성, 교육여행관계자의 초청
 - 방일 신혼여행의 광고 지원
 - 미국시장
 - AARP등 단체에 대한 프로모션 및 간부 초청사업(8월-)
 - 크루즈의 조사, 프로모션(5월~)
 - 방일여행판매의 재팬트레블 스페셜리스트의 육성사업(7월~)
 - 대만
 - 가을철 여행상품 판매 촉진지원을 위한 광고사업(9월)
 - Visit Japan Campaign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대만의 일반 소비자나 여행사에 주지시키기 위한 포스터의 제작, 배포사업 등을 실시(6월)
 - 방일여행상품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행에이전트 및 마스크 관계자를 초청하는 사업을 실시(7~9월)
 - 방일 대만인관광객이 최저한 필요로 하는 방일여행정보를 망라한 팸플렛의 작성(6월)
 - 대만출판사하고의 연계에 의한 가이드북의 작성(6월)
 - 대만시장에서 바로 얻을 수 있는 관광정보 웹사이트의 구축(6월)

- VJC 대만 실시 본부의 설치(8월)
- 중국시장
 - 방일 여행을 취급하는 여행사 사원의 스페셜리스트 육성사업(교재 작성, 연구의 실시)(5~8월)
 - 미디어 믹스에 의한 가을 방일여행의 광고, 선전 사업
 - 상하이에서 열리는 여행 박람회, 상하이 세계여행자원박람회(WTF)에 출전하여 방일여행을 PR한다. (7~9월)
- 홍콩시장
 - 미디어 믹스에 의한 광고 선전 사업(8~9월)
 - 여행 박람회, 홍콩 국제 여행교역회(ITE)에 출전하여 방일 여행을 PR한다.(9월)
 - 방일여행상품(특히 개인여행상품)의 조성을 위해 여행에이젠트 초청 사업을 실시(10월)
 - 새로운 관광자원이나 여행정보의 PR을 위한 신문 잡지기자의 초청사업을 실시(7월)

2. New Welcome Plan 21 : 일본

○ 추진 배경 및 목적

- 국제사회의 대일 이해증진과 지방의 국제화,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의 방일 및 지방권의 유치 필요
- 1996년 4월에 향후 2005년까지 방일 외국인 여행자수를 700만 명으로 배증시킬 것과 지방권으로의 유치를 목적으로 하였던 『웰컴플랜21 (방일관광교류배증계획)』에 대해서 제언됨. 특히 1997년6월에 지방권으로의 유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지역의 다양화의 촉진에 의한 국제관광진흥에 관한 법률(외객유치법)』이 시행, 또한 2000년5월에 『관광산업진흥포럼』에 있어서 『방일 외래객 증진을 위한 체재에 관한 긴급제안』이 채택되어 향후 2007년을 기준으로 외래객수 8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신웰컴플랜21』을 발표
- 신웰컴플랜의 구체적인 추진 목적은 방일외국인여행자 수의 증가에 의한 여행수지 적자의 완화,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일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역의 매력창출과 지역의 활성화임

○ 추진내용

- 기본방침
 - 『신웰컴플랜21』에서는 종래의 『웰컴플랜21』에 근거한 체재에 더불어 국기와 지방에 있어서 외국인 내방촉진 시책의 강화, 민간관광업계에 있어서 외국인 내방 촉진을 위한 체제의 충실 등의 사항이 추가되었음.
-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 촉진에 관한 사항
 - 지역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 관광 진흥에 기여하는 기본적 사항
 - 외래객 내방촉진지역의 정비 및 해외에서의 선전에 관한 사항

- 외국인 관광객이 일본국내에 있어서 교통, 숙박, 그리고 그 밖의 여행에 필요한 비용의 저렴화에 관한 사항
- 통역 안내 그 밖의 외국인 관광여행객에 대한 접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지역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관광의 진흥에 기여하는 중요 사항

○ 단계별 추진내용

-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정비와 중점적 해외선전의 실시
- 국제교류거점 쾌적관광공간의 정비
- 외국인 여행자의 국내비용의 저렴화와 접우의 향상
- 차세대 관광정보의 정비
- 해외선전 캠페인의 실시
- 월드컵을 활용 한 홍보선전 체재 정비
- 아시아 인접국가간의 관광교류 촉진

○ 추진주체 및 역할

- 국토 교통성(국토 교통 대신)
 -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선정, 외객내방촉진계획의 작성과 이에 근거한 국제관광테마지구의 선정
 - 외국인 관광객의 내방지역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의해 국제관광진흥에 기여하는 기본방침의 설정 및 기본 방침의 변경, 공표
 - 도도부현의 외객내방촉진계획의 검토 및 승인
 - 지방채에 대한 배려
 - 운송업자에 의한 외국인 공통승차선권에 대한 운임 및 요금 할인에 대한 신청서의 접수
- 도도부현

- 단독 혹은 공동으로 하여 해당 도도부현 내에서 외객내방촉진계획을 설정
 - 외래객 내방촉진지역의 구역, 숙박거점지구의 구역, 외객내방촉진지역에서의 관광경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안내시설의 정비 방침, 일본의 고유문화 역사 등에 관해 외국인관광객의 이해증진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숙박거점지역의 정비
 - 외래객내방촉진계획에 의거한 관계 시정촌과의 협의 및 공표
- 국제관광진흥회
- 국제관광테마지구에 대한 중점적인 해외선전
 - 외국인 내방 촉진 지역에 대한 해외에서의 선전 및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해외홍보활동에 대한 조언
 - 일본 국내에서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운영하는 공동승차선권, 숙박시설, 식사시설, 그 밖의 관광관계시설에 대한 정보제공
 - 외국인 여행객이 운송기관 혹은 관광관련시설을 이용 할 때에 할인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증표에 관한 정보제공 및 조언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2-01	통일한국의 비핵정책: 통일과정에서 통일이후를 바라보며	전성훈	저	8,000원
2002-02	남북 환경·에너지협력 활성화 전략 연구	손기웅	저	8,500원
2002-03	미국의 MD체제 추진 실태와 국제사회의 반응	이현경 외	공저	9,000원
2002-04	북한의 맑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의 비교연구	서재진	저	8,500원
2002-05	북한사회의 상징체계 연구	이우영	저	5,500원
2002-06	북한인권과 유엔인권레짐	최의철	저	6,000원
2002-07	김정일 정권의 외교 전략	박영규	저	4,000원
2002-08	북한의 대남 정책 특징	전현준	저	4,000원
2002-09	김정일 현지지도의 특성	이교덕	저	4,000원
2002-10	김정일총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2-11	“불량국가” 대응 전략	박형중	저	4,500원
2002-12	파키스탄-인도-북의 核政策	정영태	저	4,500원
2002-13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와 종교실태	김병로	저	6,000원
2002-14	9.11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과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4,000원
2002-15	북한의 국가위험도 측정모델 개발연구	김규륜	저	3,000원
2002-16	남북한 관계의 제도적 발전 : 이론과 실제	김학성	저	5,500원
2002-17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	홍관희	저	5,000원
2002-18	북한 협동농장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2-19	북한경제의 변화 “이론과 정책”	오승렬	저	4,500원
2002-20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협력	최수영	저	4,500원
2002-21	남북협력 증진을 위한 군사적 조치의 이행방안	박종철	저	4,000원
2002-22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진로	김학성 외	공저	8,500원
2002-23	남북한 및 미국의 3자 관계와 평화공존	박영호	저	5,000원
2002-24	북한의 핵개발계획 인정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저	4,500원
2002-25	화해협력정책과 남북한 미래상 연구	조민	저	4,500원
2002-26	남북한 사회문화공동체 형성 방안 연구	조한범	저	3,500원
2002-27	새로운 남북협력모델의 모색	임강택	저	5,000원
2002-29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이론적 모델)	박영호	저	4,500원
2002-30	통일시나리오와 통일과정상의 정책추진방안 (점진적 시나리오)	조한범 외	공저	6,000원
2002-32	미국의 대·반테러 세계전략과 대북전략	이현경	저	6,000원
2002-33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와 추이	김영춘	저	4,500원
2002-34	21세기 한국의 발전구상과 대북전략	배정호	저	5,000원
2002-35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中國	최춘흠	저	3,500원

2002-36	통일독일의 적극적 외교정책과 한반도	여인곤	저	7,000원
2002-37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김국신	저	4,000원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헌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항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윤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2	서재진 · 최의철 · 김병로 외	공저	8,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2</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 최의철 · 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 최의철 ·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보고서

200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2002~2003	6,000원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2-01	한반도 평화정착의 현황과 전망	4,500원
2002-02	북한 체제의 현주소	7,000원
2002-03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	6,500원
2002-04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	5,500원
2002-05	한반도 평화정착과 국제협력	6,500원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장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 · 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1권 1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1권 2호 (200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1 (2002)	8,5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1, No. 2 (200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2-01 남북한 '실질적통합'의 개념과 추진과제			7,500원
2002-02 남북한 실질적 통합을 위한 교류·협력 제도화 방안			10,000원
2002-03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북투자 방안	김영운 외	공저	9,000원
2002-04 남북연합기 북한 지역에 시장제도 정착 방안	박형중 외	공저	6,000원
2002-05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 주변국 협력 유도 방안	배정호 외	공저	6,000원
2002-06 남북연합 하에서의 남북정치공동체 형성 방안	박영호 외	공저	6,000원
2002-07 남북한 실질적 통합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위상과 역할	허문영 외	공저	5,500원
2002-08 남북한 통합을 위한 종교교류·협력의 제도화 방안	김병로 외	공저	7,500원
2002-09 남북한 직업교육훈련체제 통합 및 운영방안 연구	강일규 외	공저	8,500원
2002-10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에서의 행정통합의 과제	양현모 외	공저	7,000원
2002-11 남북한 실질적 통합단계의 교육통합 방안 연구	윤종혁 외	공저	6,000원
2002-12 남북한 법통합 및 재산권문제 해결방안 연구	조은석 외	공저	10,000원
2002-13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청소년 교류·협력 제도화방안 연구	길은배 외	공저	9,000원
2002-14 남북한의 실질적 통합을 위한 여성정책방안	김제인 외	공저	10,000원
2002-15 실질적 통합대비 남북한 농업기술 교류협력 공동 추진 계획	신동완 외	공저	10,000원
2002-16 실질적 통합 단계에서의 남북 문화예술 분야의 통합방안	김동규 외	공저	8,000원

2002-17	2002년 협동연구 요약집			10,000원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인식의 모색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차별성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실 외	공저	5,000원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역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역 외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2-01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이현경		
2002-02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결과분석	최진욱, 임강택		
2002-03	미국의 북한인권문제 관련 동향분석	서재진, 김수암		
2002-04	한반도 현안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입장	최춘흙		
2002-05	북한의 7·1 '경제관리개선' 조치가 주민생활 변화에 미칠 영향	서재진		
2002-06	후진타오시대 중국의 대내외정책 전망	신상진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 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